

No Pain, No Gain!

2022. 07. 20.

‘혁신 24, 새로운 미래’ 발제



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재완
jbahk@skku.edu

I

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

앞으로가 더 문제



III

걸림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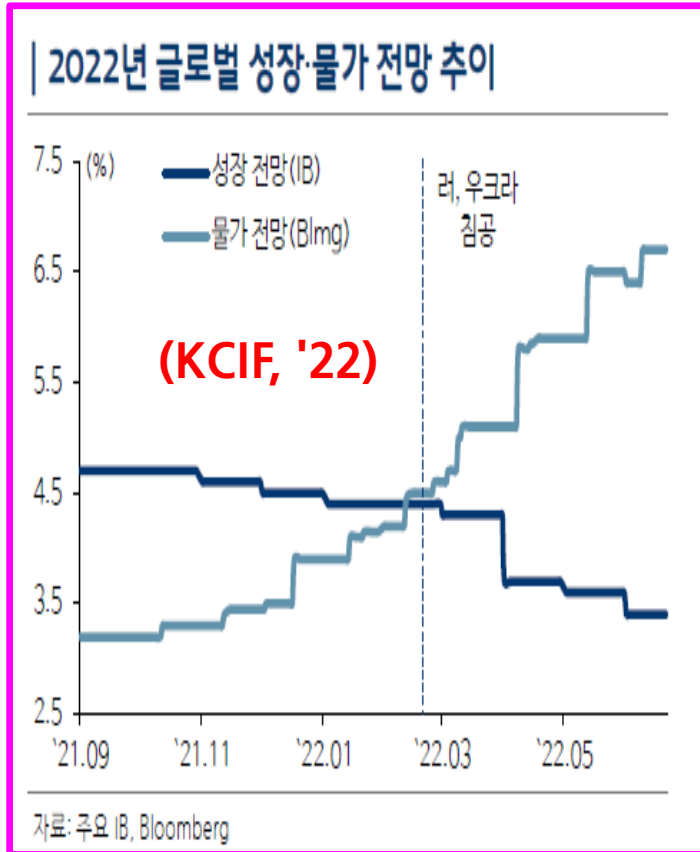
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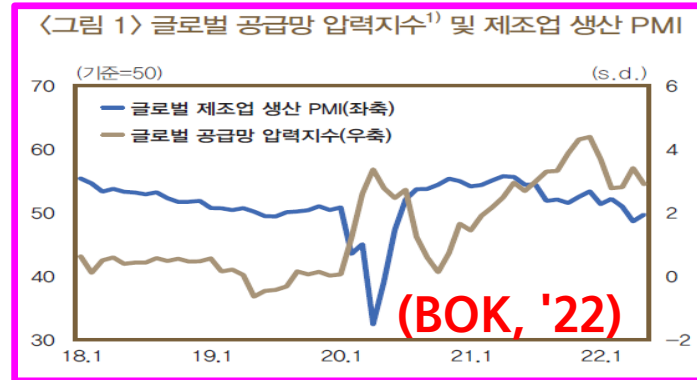
침로

1. 경기 침체의 전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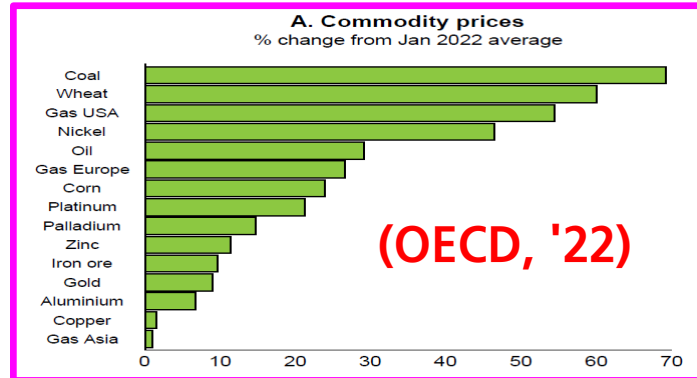
'22년 급변한 세계경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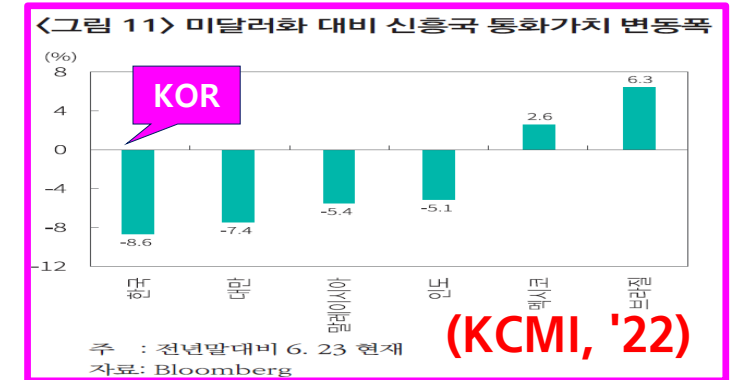
공급망 애로로 제조업 고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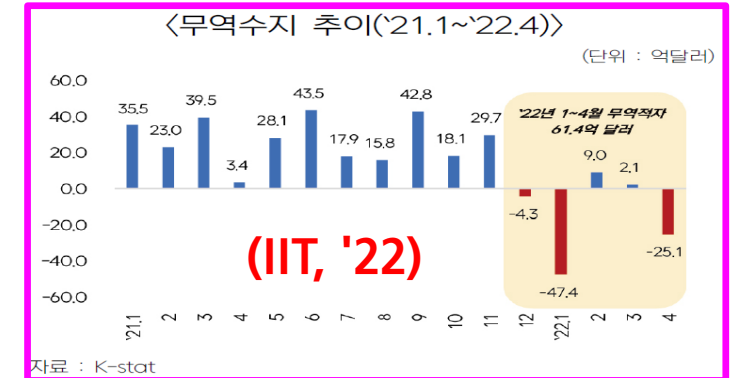
'22년 상반기 원자재가 폭등



'22년 원화 가치 가파른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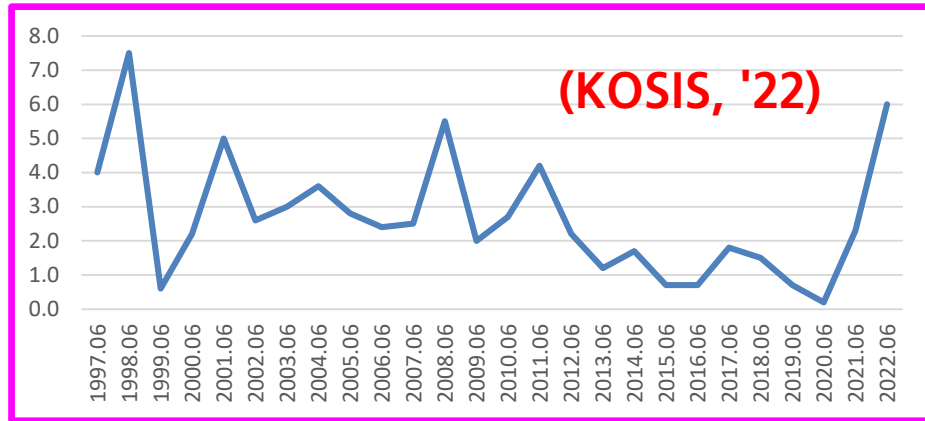


고환율에도 이례적 무역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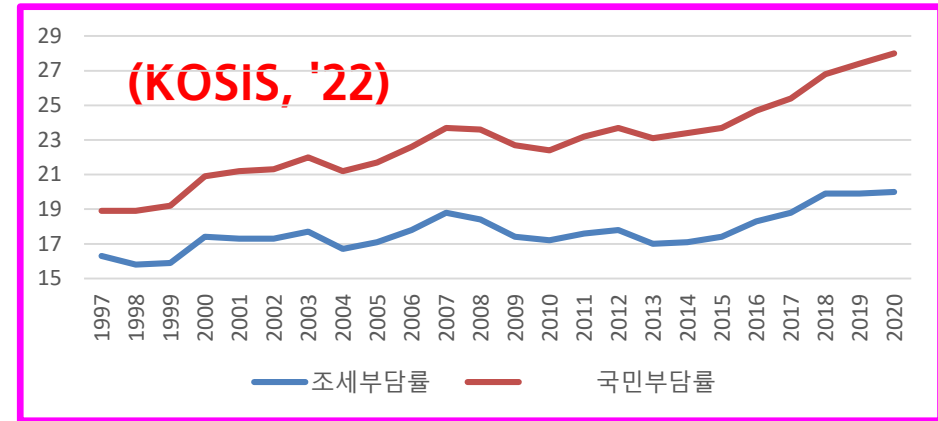


2. 민생고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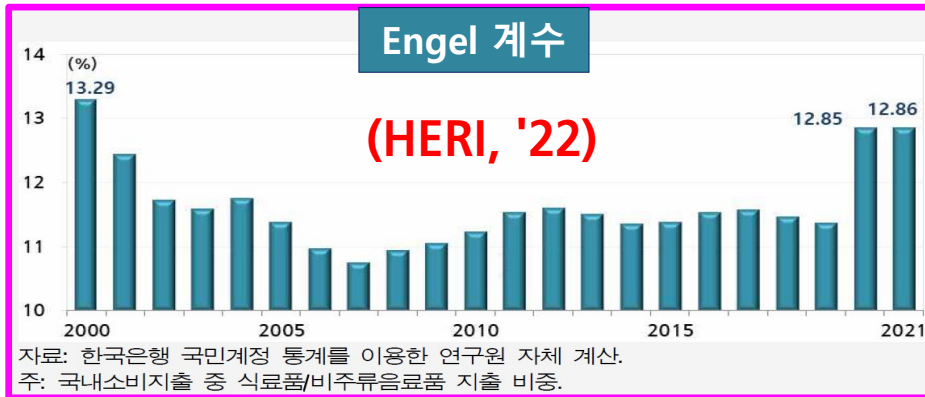
물가상승률: '98년 후 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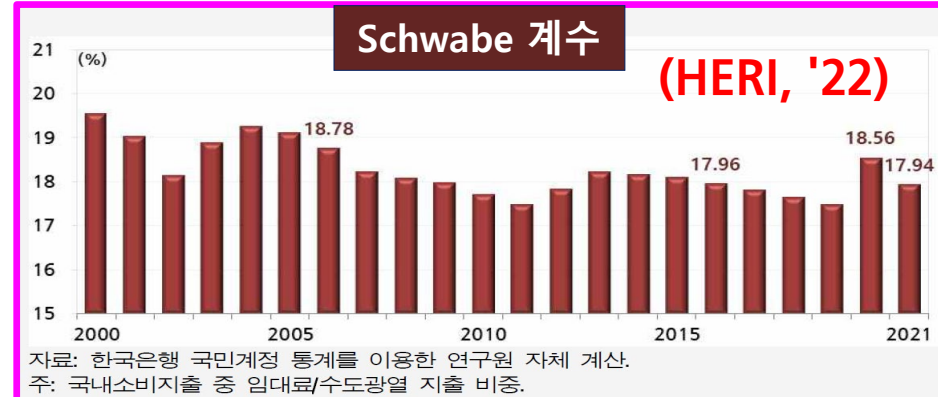
조세와 국민부담: 역대 최고



식품/소비 비중: '00년 후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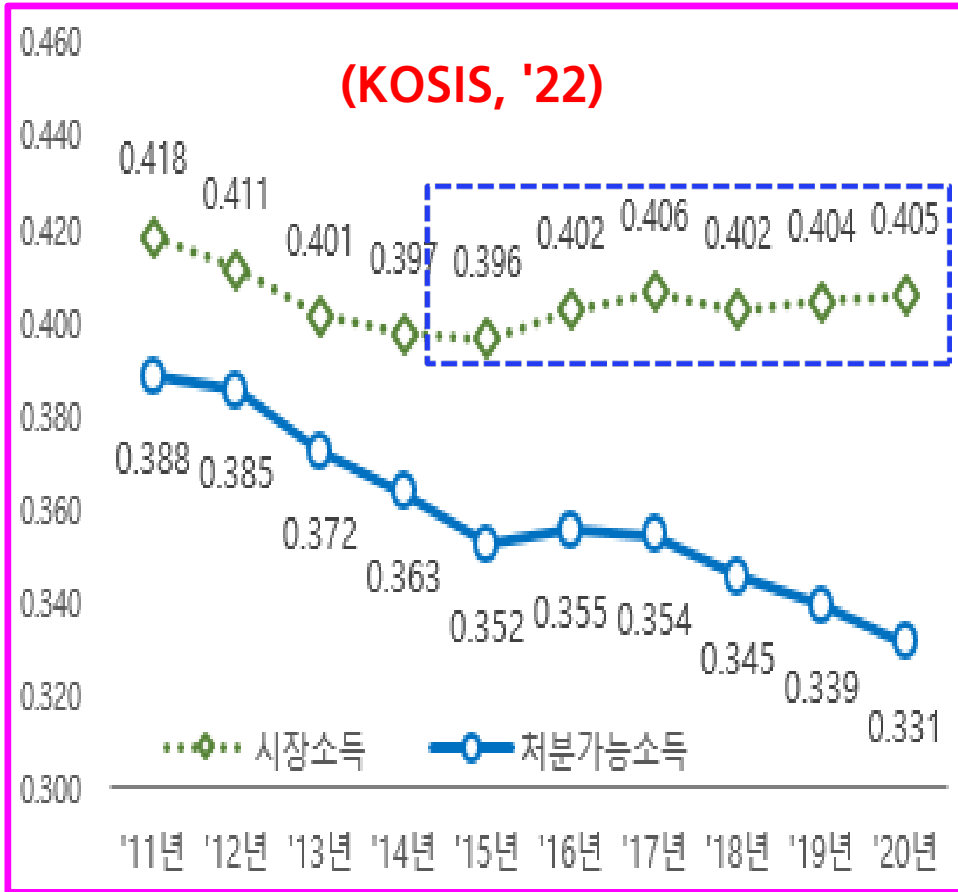


(임대료+광열비)/소비: '05년 후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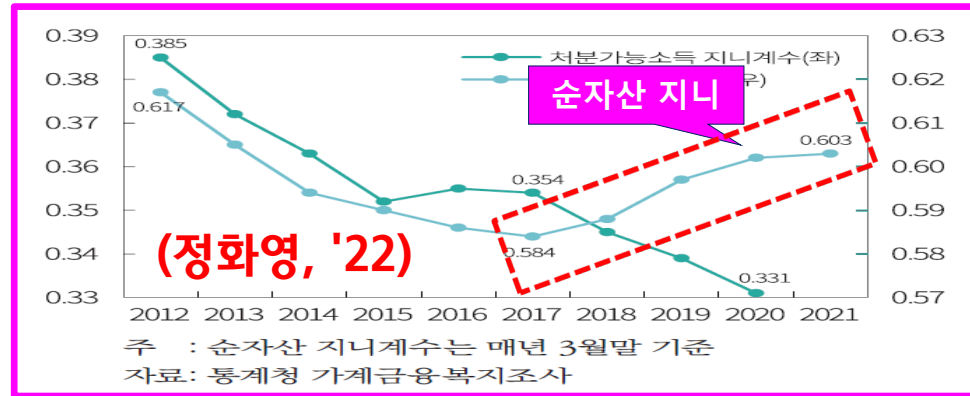


3. 격차 확대(I): 시장 소득과 자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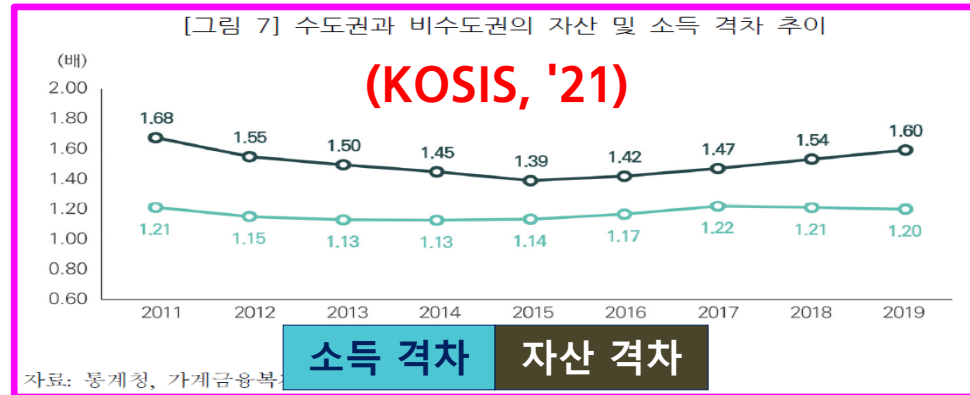
시장 소득 분배는 답보/악화



줄어들던 자산 격차 확대 추세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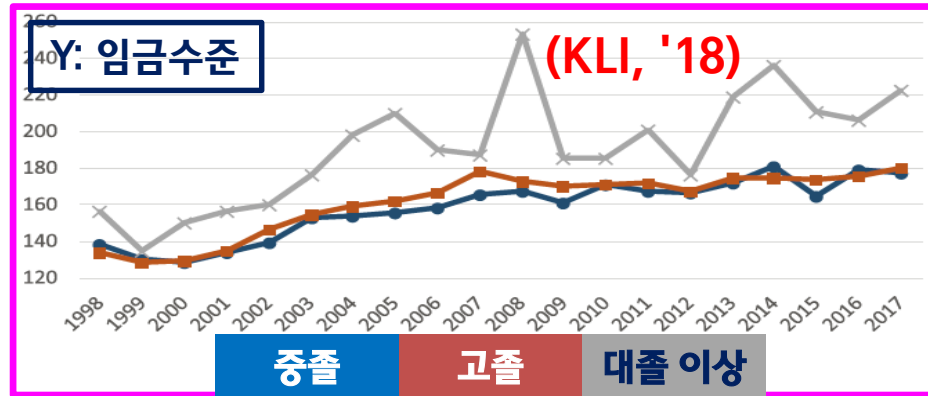


수도권 vs. 지방의 자산 격차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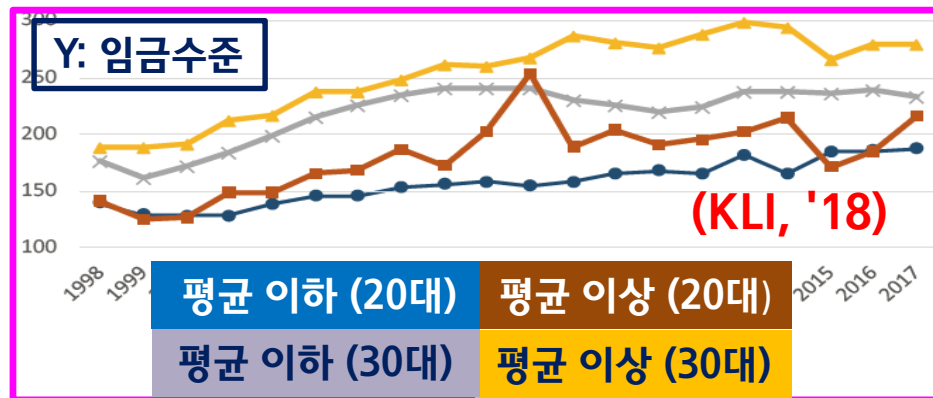


3. 격차 확대(II): 계층 대물림과 한계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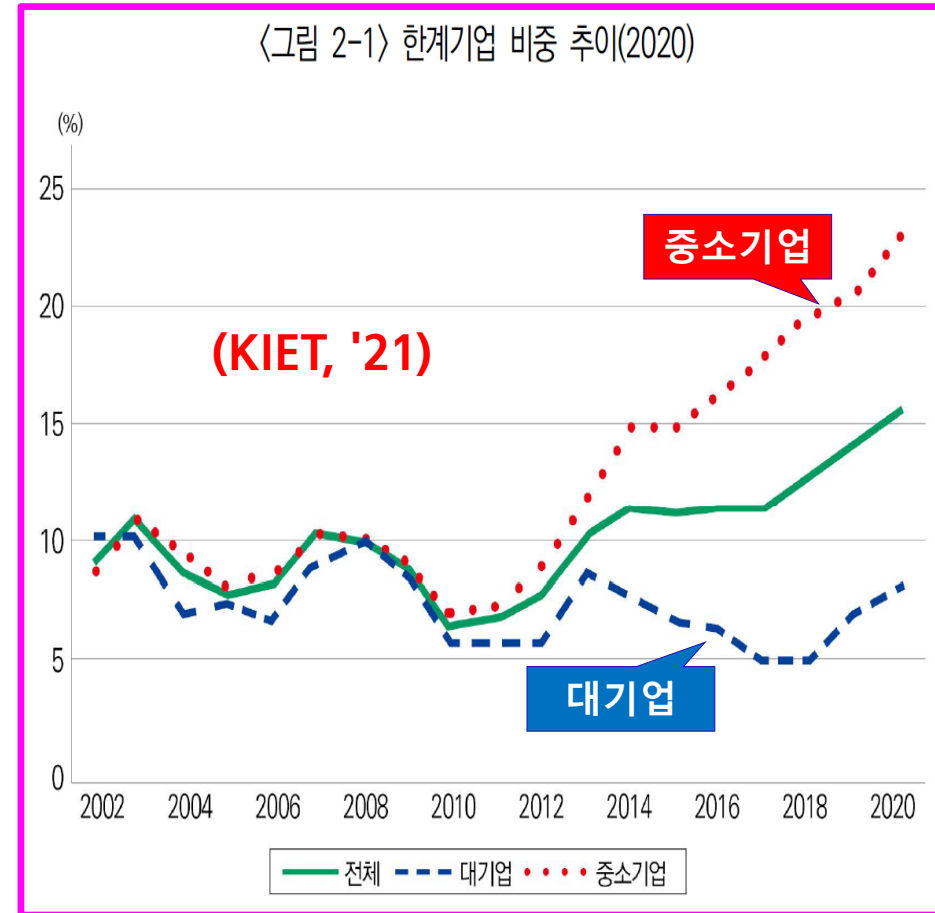
아버지 학력과 20대 임금



가구 소득계층과 20~30대 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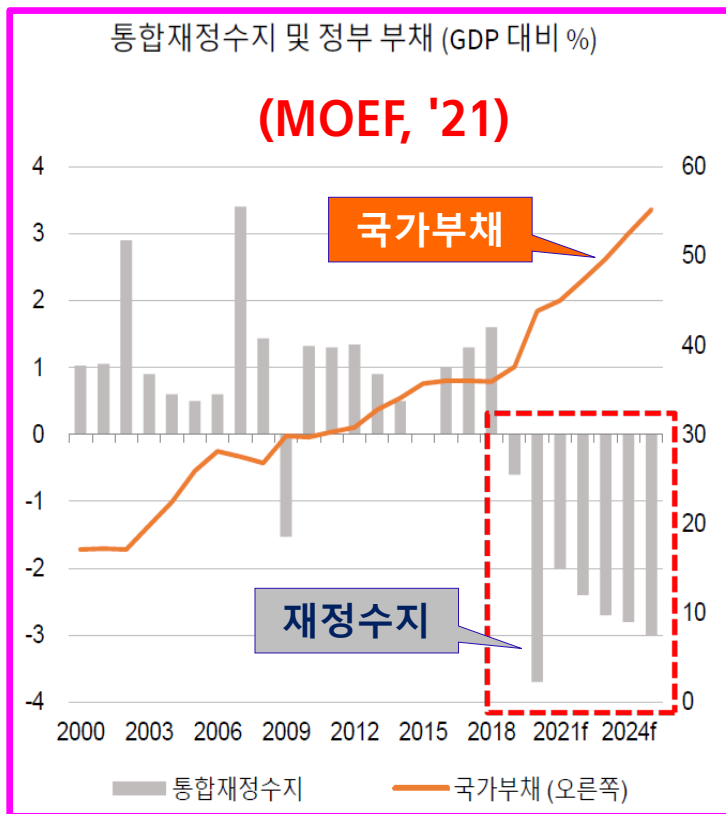


한계 중소기업 비중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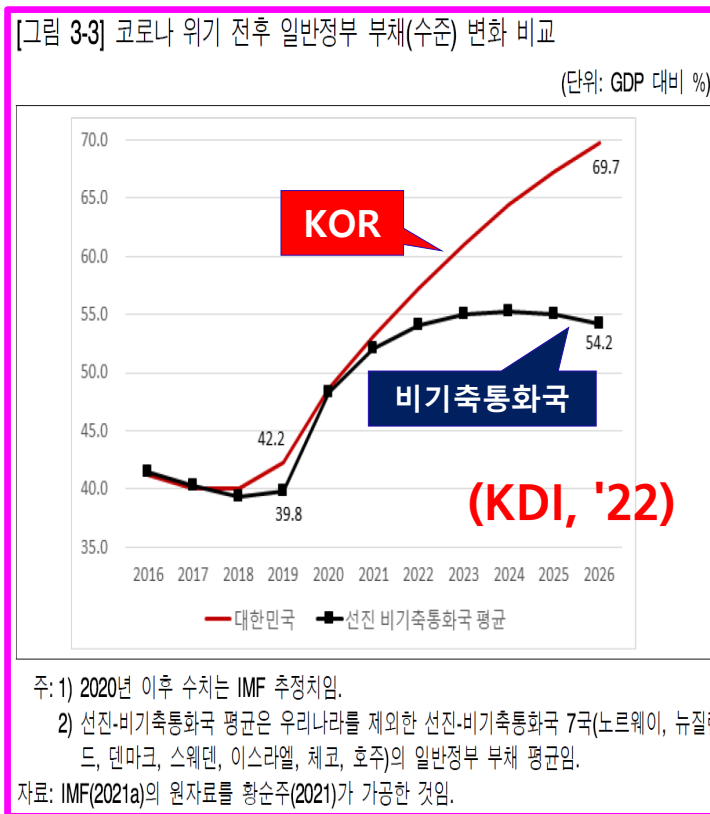


4. 정책 여력은 제약(I): 악화 일로의 재정건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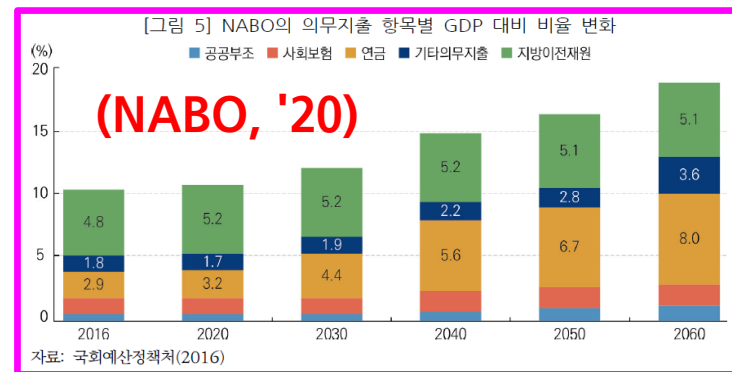
재정은 만성 적자로 전환



코로나 전후 정부 부채 변화



의무지출비율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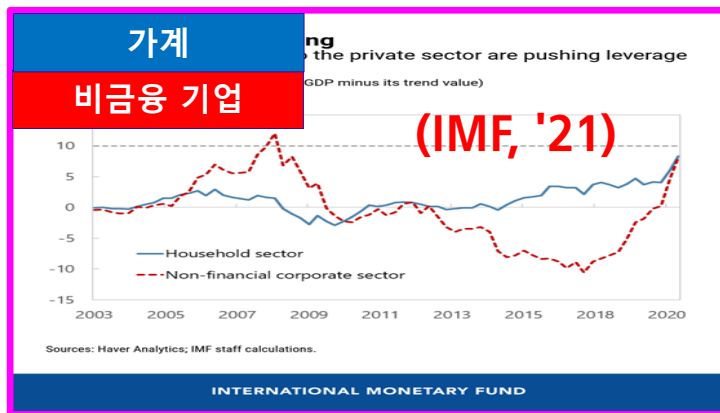
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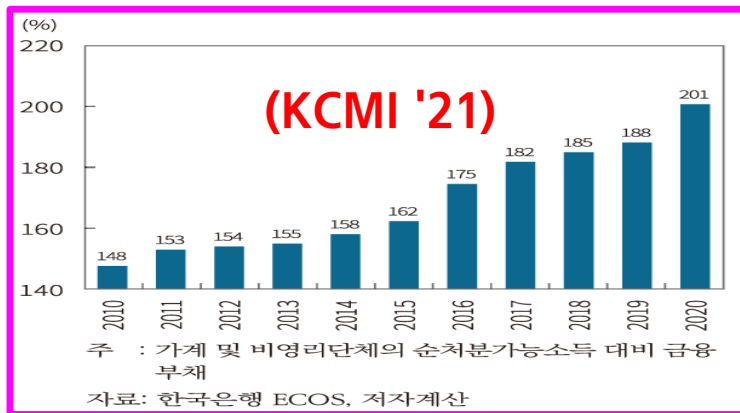
➤ GDP 대비 국가채무가 '10년 30.8%에서 '25년 58.8%로 두배 가까이 급상승

4. 정책 여력은 제약(II): 민간 부채도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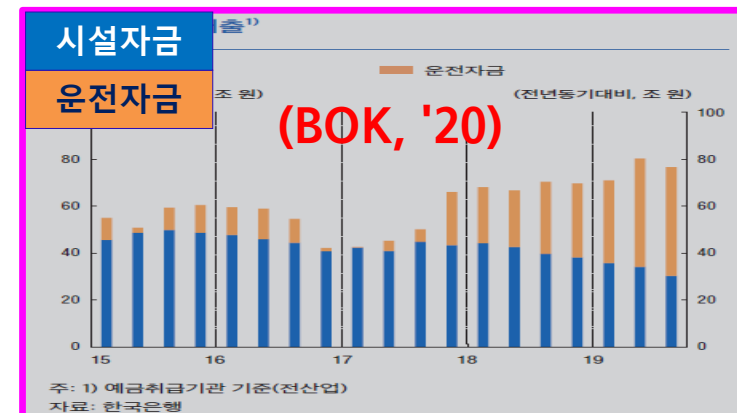
민간 신용 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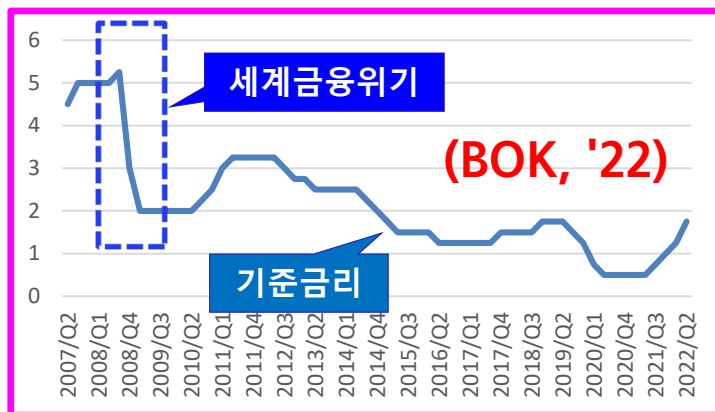
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 급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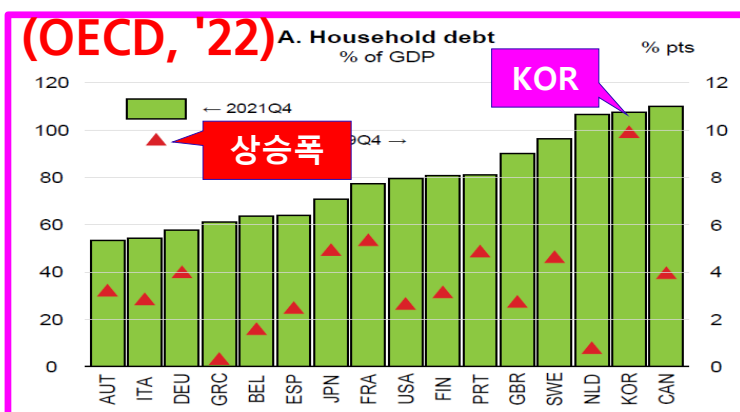
기업 대출의 用途 악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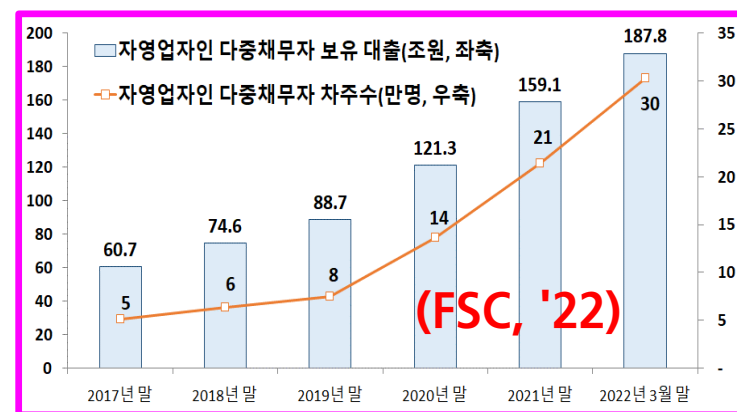
금리 인상 불가피



코로나 이후 가계부채 상승폭 최고



다중 채무 개인사업자 급증



I 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 앞으로가 더 문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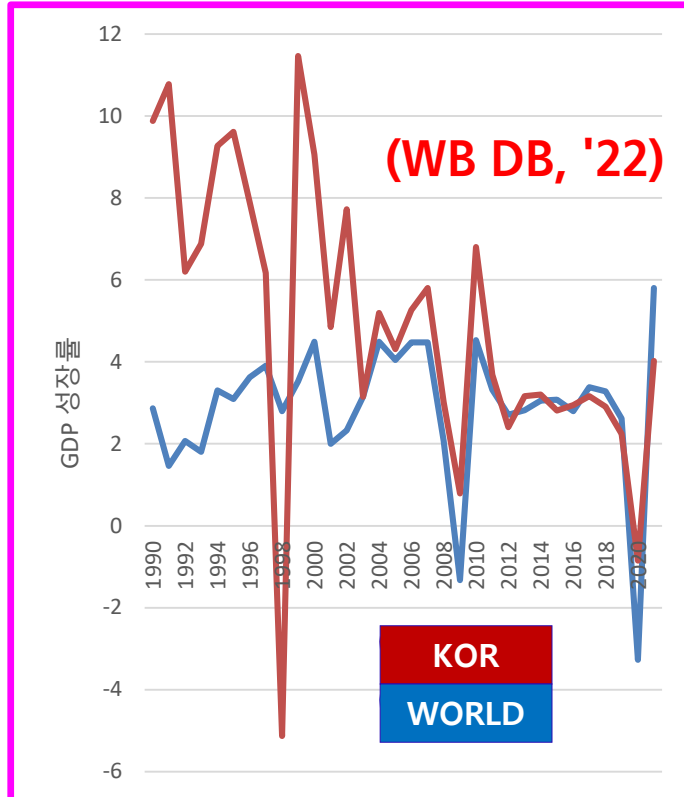
III 걸림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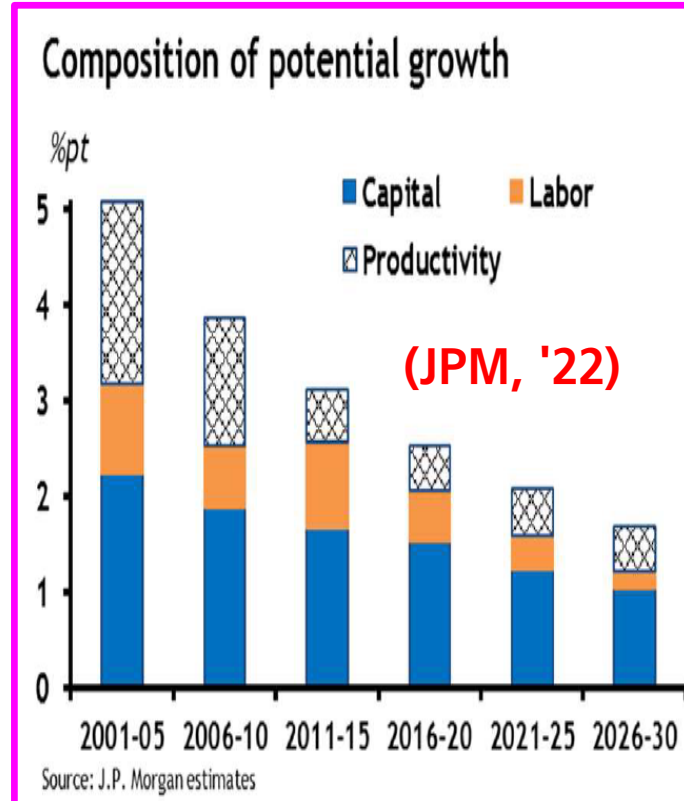
IV 침로

저성장 기조 고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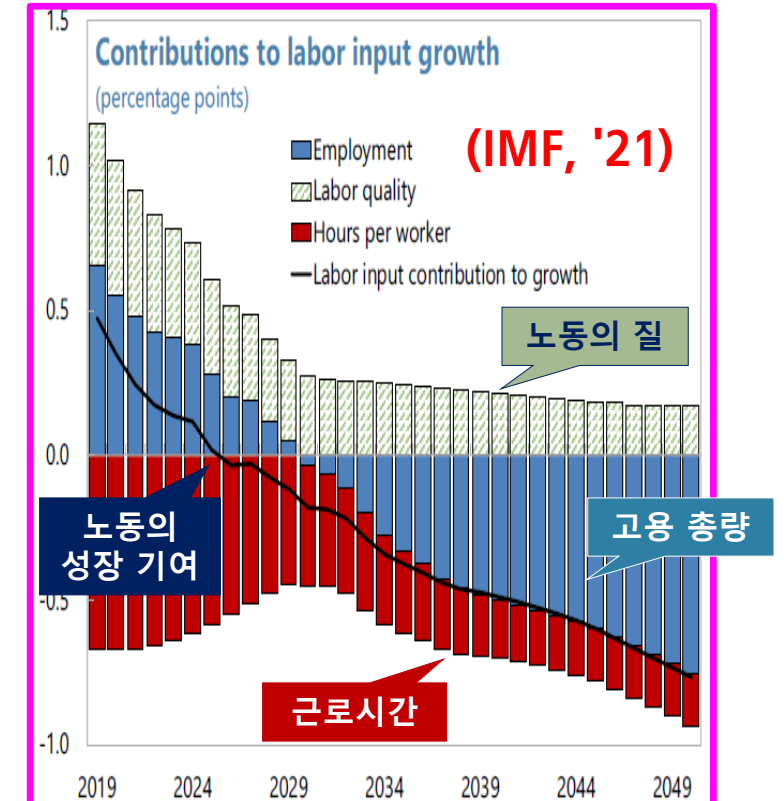
성장률이 세계경제에 근접/추월



잠재성장률 꾸준히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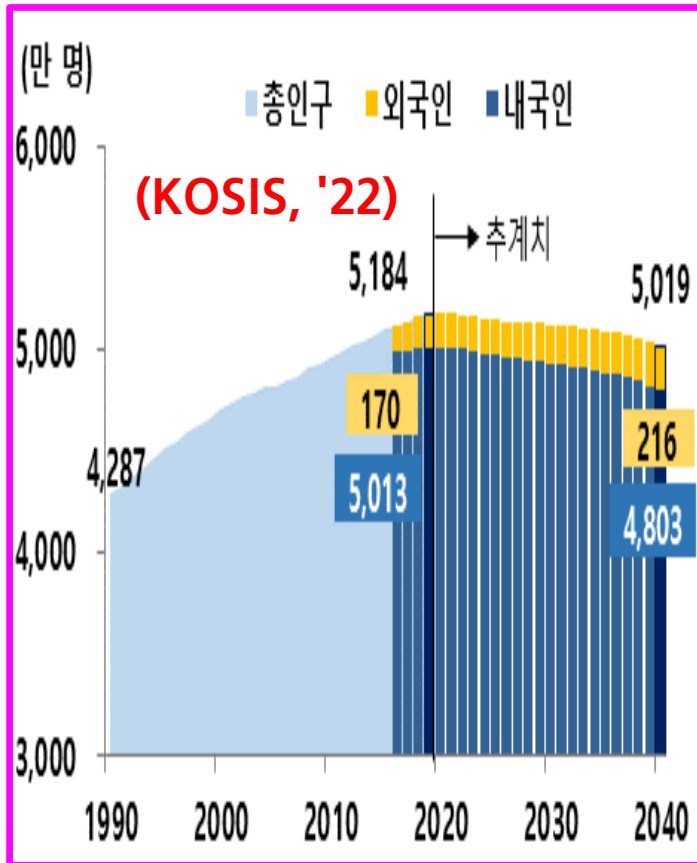


노동의 성장 기여도 곧 (-)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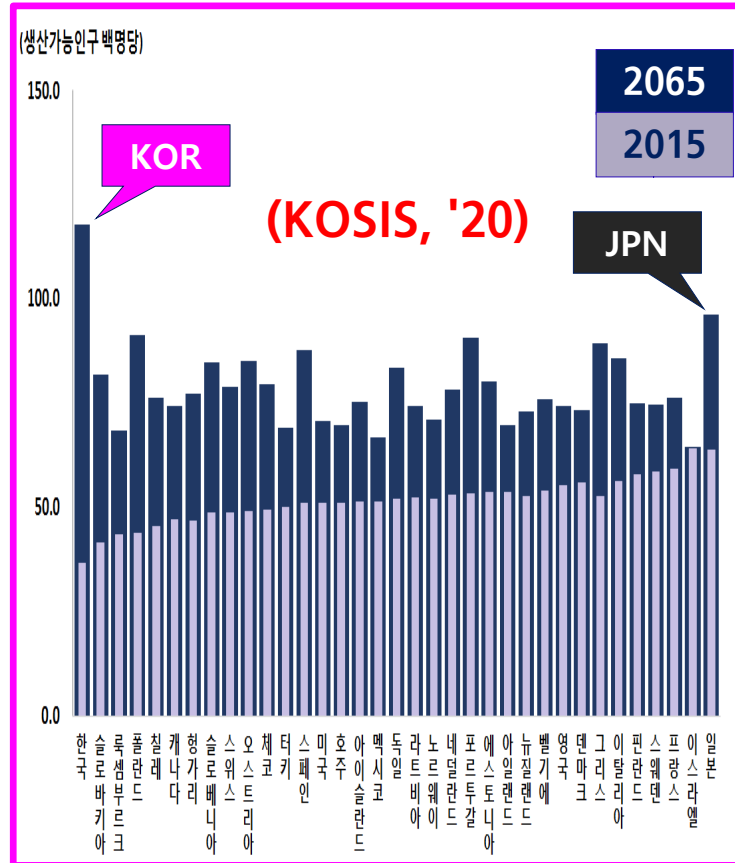


1. '인구 배당' 희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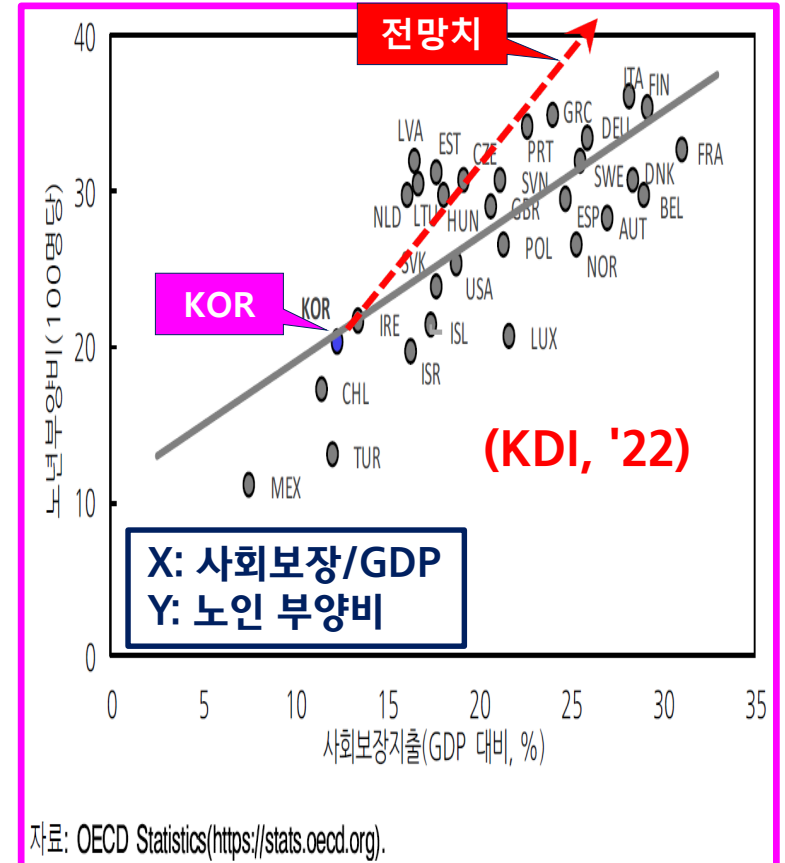
총인구 감소



(노인+아동) 부양비 급등



부양비와 (사회보장/GDP) 비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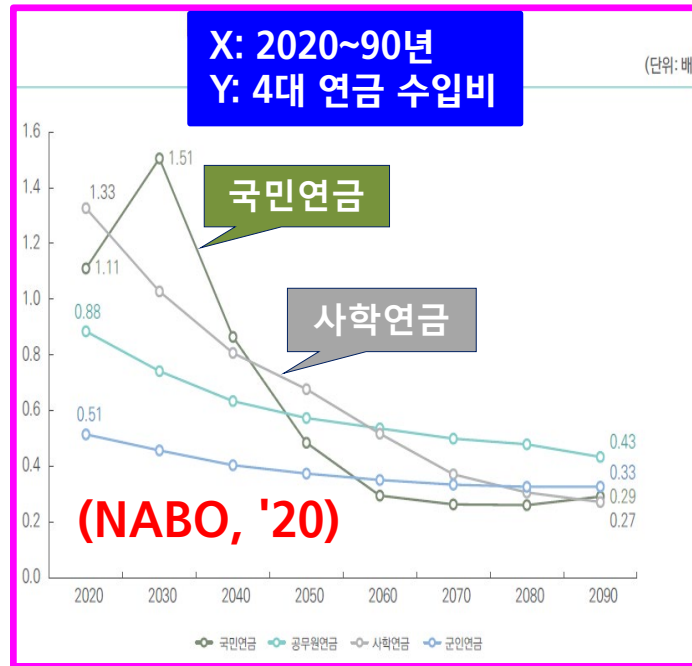


고령화/핵가족화 → 성장 둔화, 분배 악화, 재정압박 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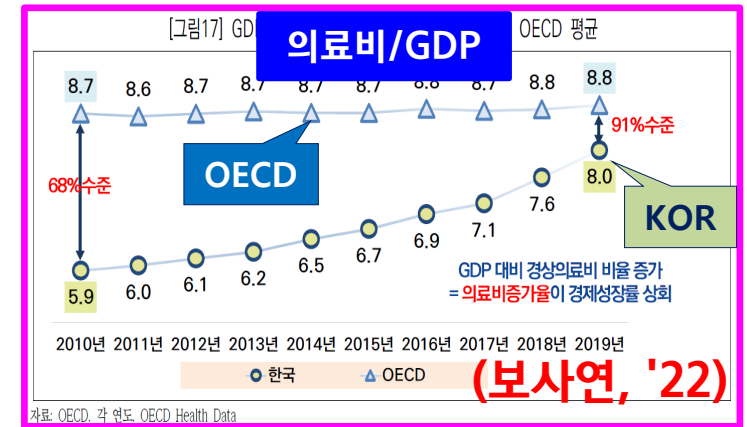
1인 세대 점증



공적 연금 건전성 악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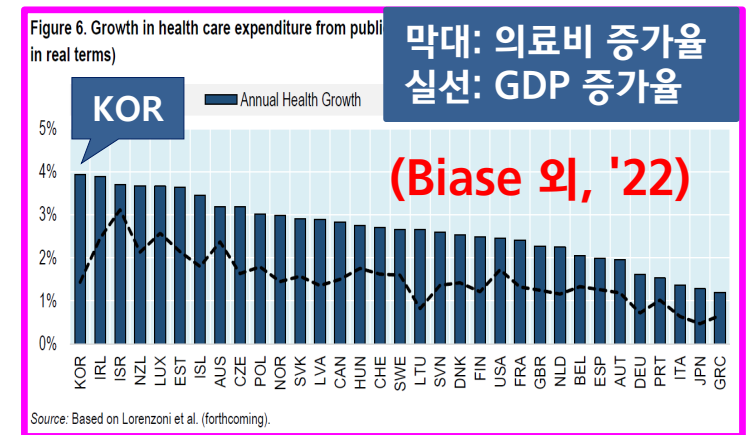
의료비 부담 가중



✓ 가족의 힘(美): 근로 윤리, 책임/자조, 저축 (CFS, '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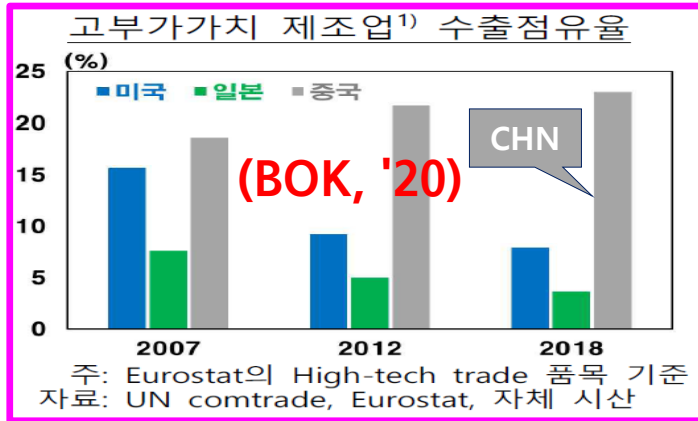
➤ 백인 가구 순자산: 흑인 가구의 10배

➤ 백인 1인 가구 순자산: 흑인 有배우자 가구의 1/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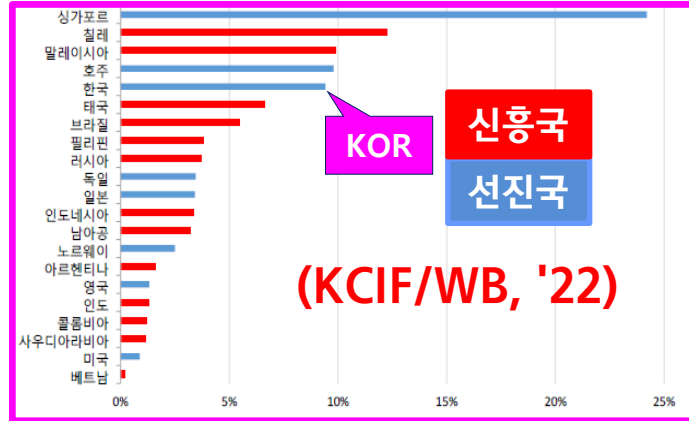


2. 중국의 추격/추월 → 제조업 약화

중국 제조업 급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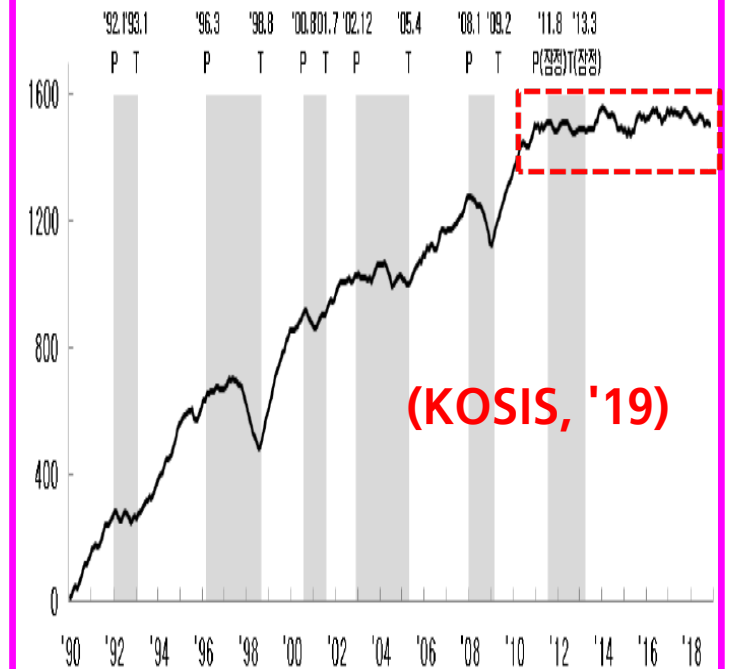


한국의 중국경제 의존 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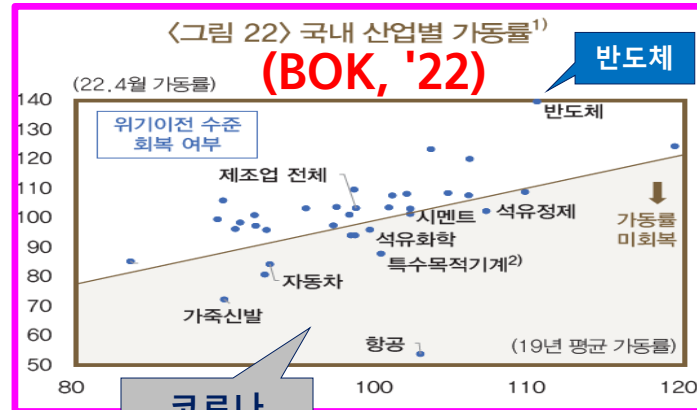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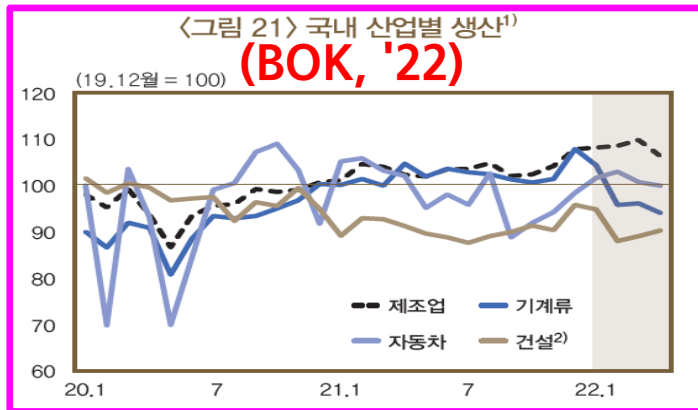


광공업 생산 역량 정체

< 광공업 생산누적확산지수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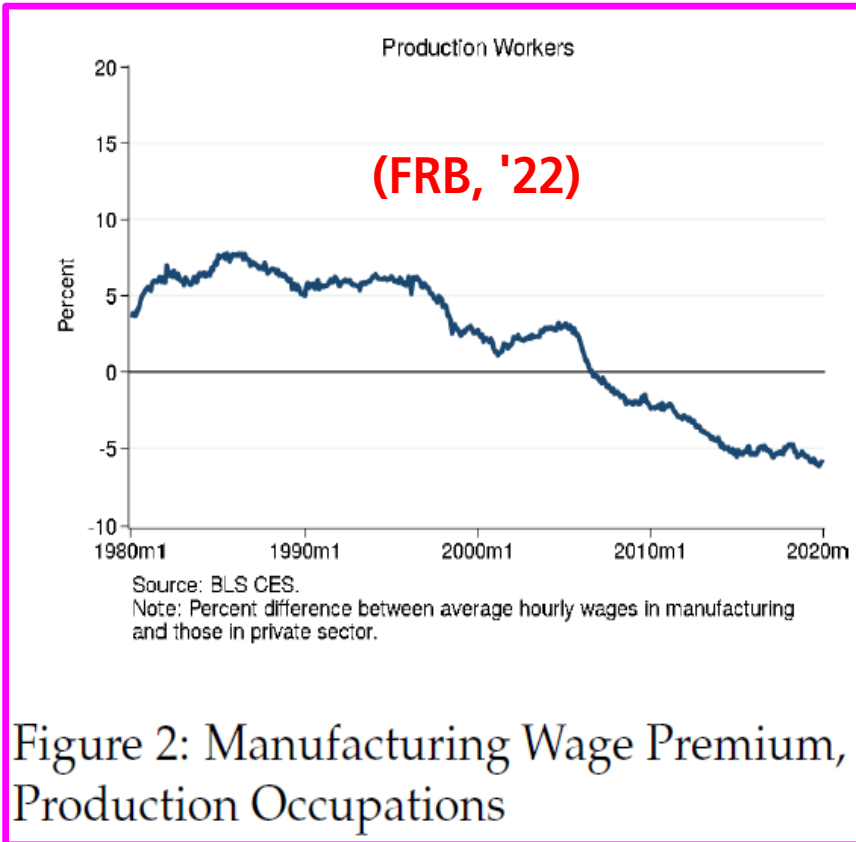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착시; 자동차/기계/건설 등은 '19년 수준에 미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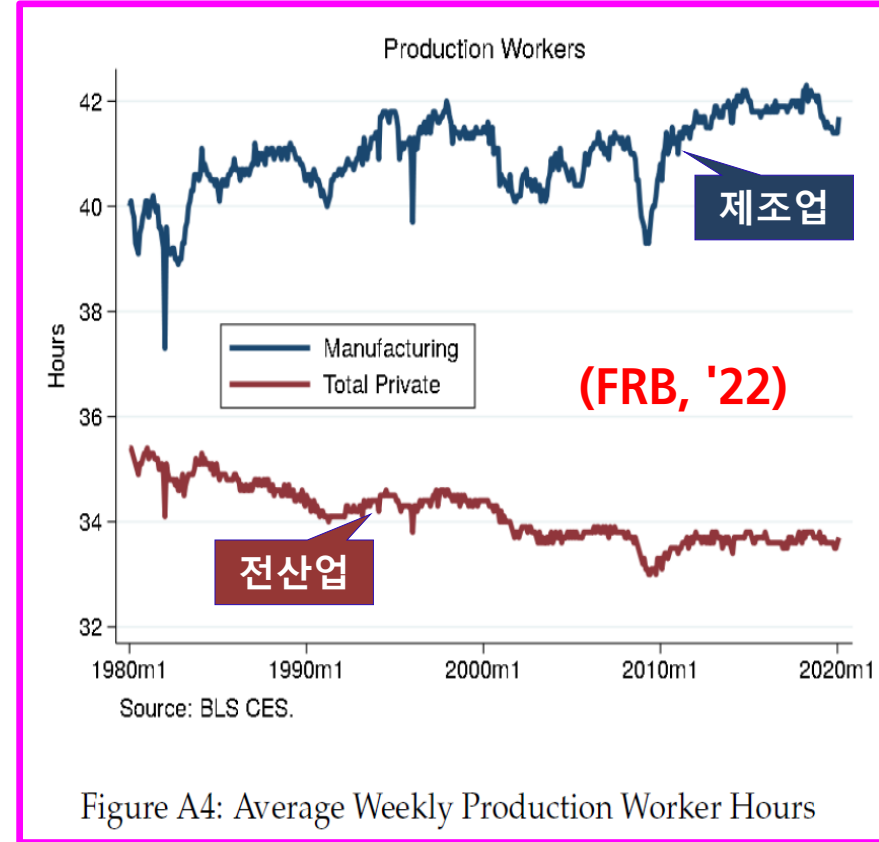
•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

전성기를 지난 제조업 (美)

제조업 임금 프리미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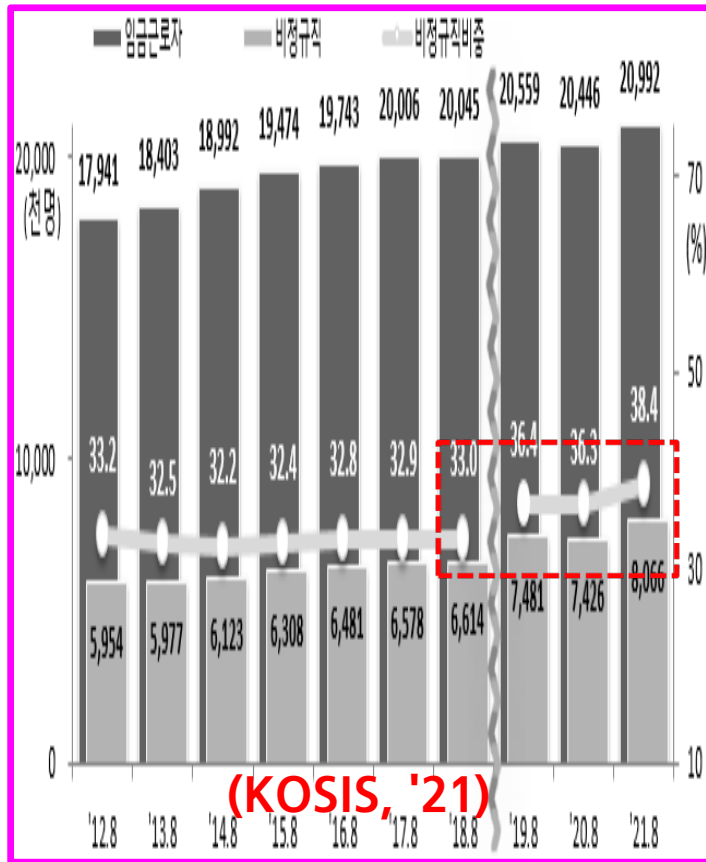


제조업 근로시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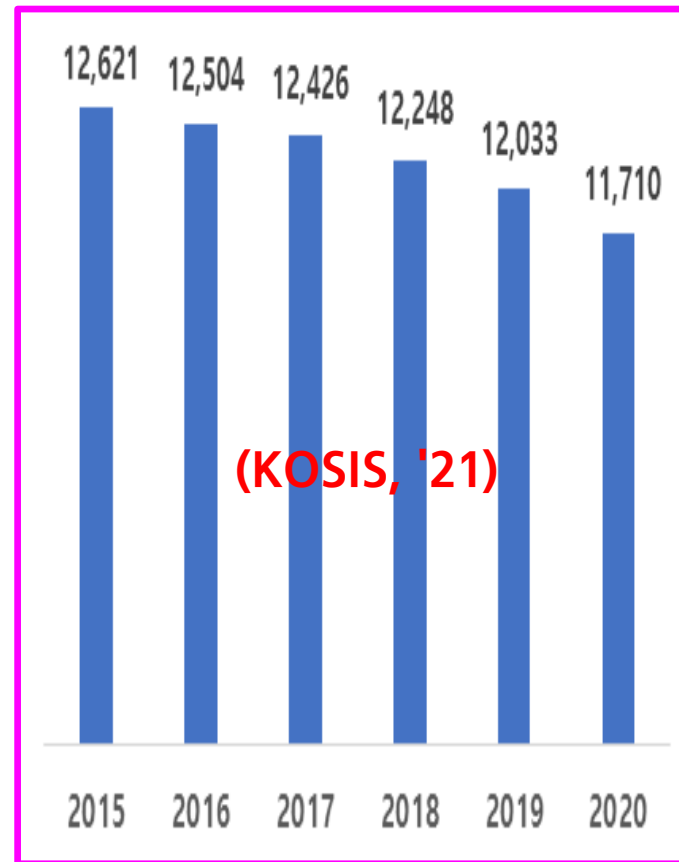


관참은 일자리 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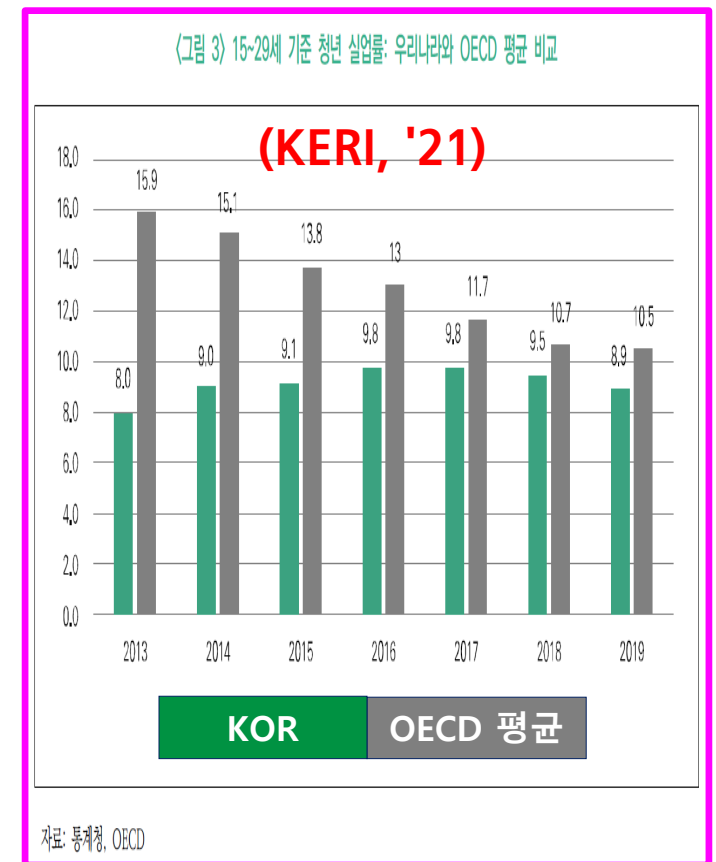
비정규직 비중 점증



30/40 취업자 감소



세계 추세와 반대인 청년 실업



I **격랑 속 우리 경제**



II **앞으로가 더 문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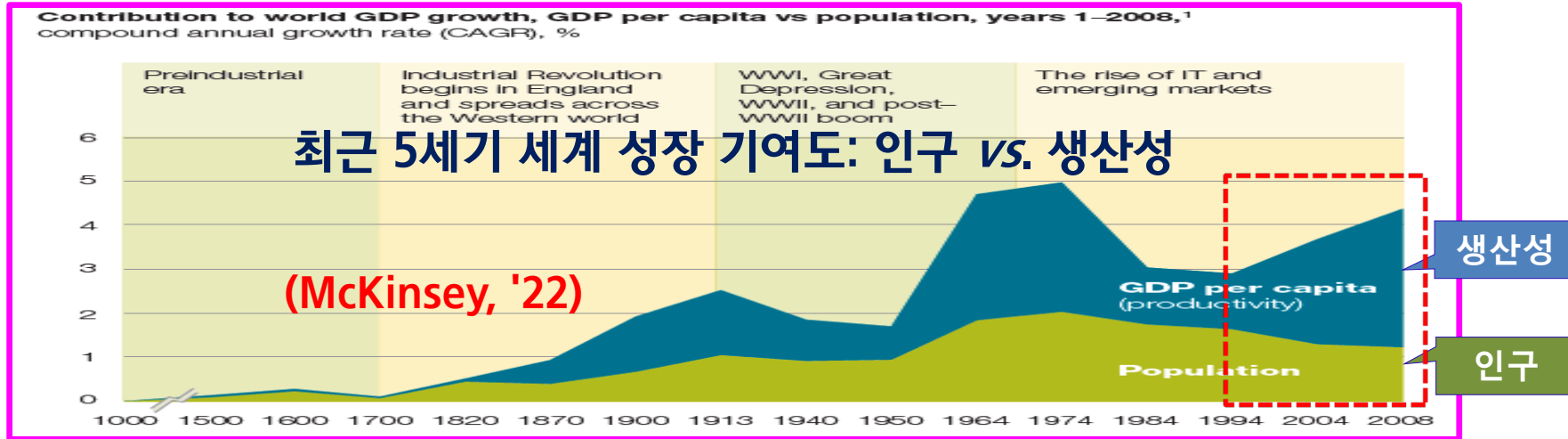


III **걸림돌**



IV **침로**

1. 민간(I): 인적 역량 확보 → 4차 산업혁명 추동에 장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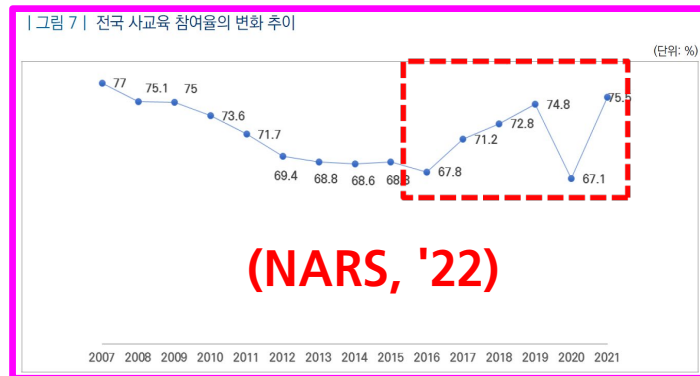
- 주입식 교육, 평가에 대비하는 '표충 학습' → 창의력 결핍
- 시장 수요와 고등교육 Mismatch → 필수 역량과 인적 역량 간 괴리
- 上命下服, 先例 답습, 책임 회피, 年功序列 문화 → 혁신 저해
- 장시간 근로와 부실한 평생학습 → 인적 자본 갱신/축적 미흡

청장년층: 학력/교육비는 최상위권 vs. 역량은 중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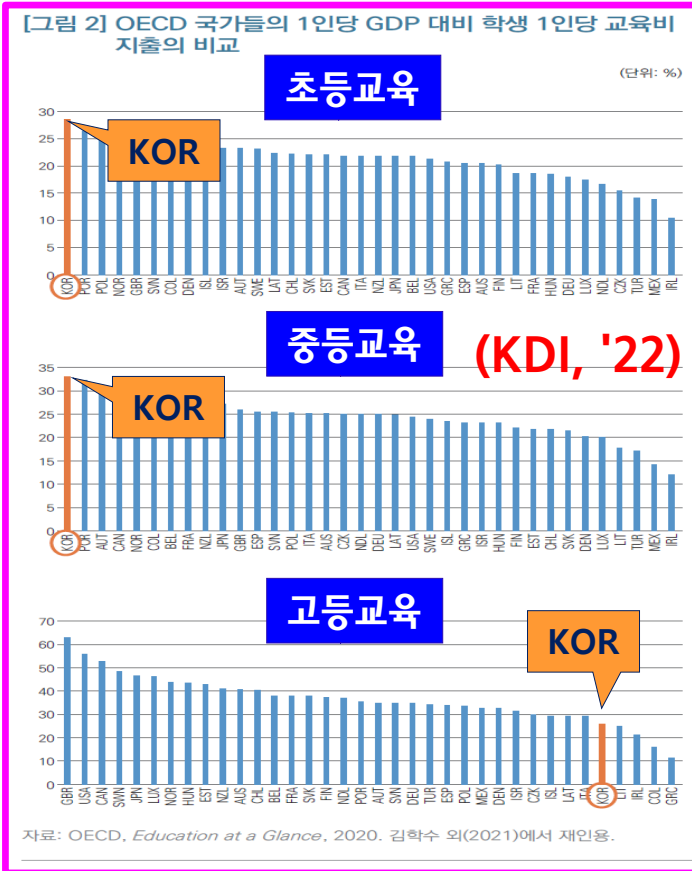
청년층 고등교육 이수 으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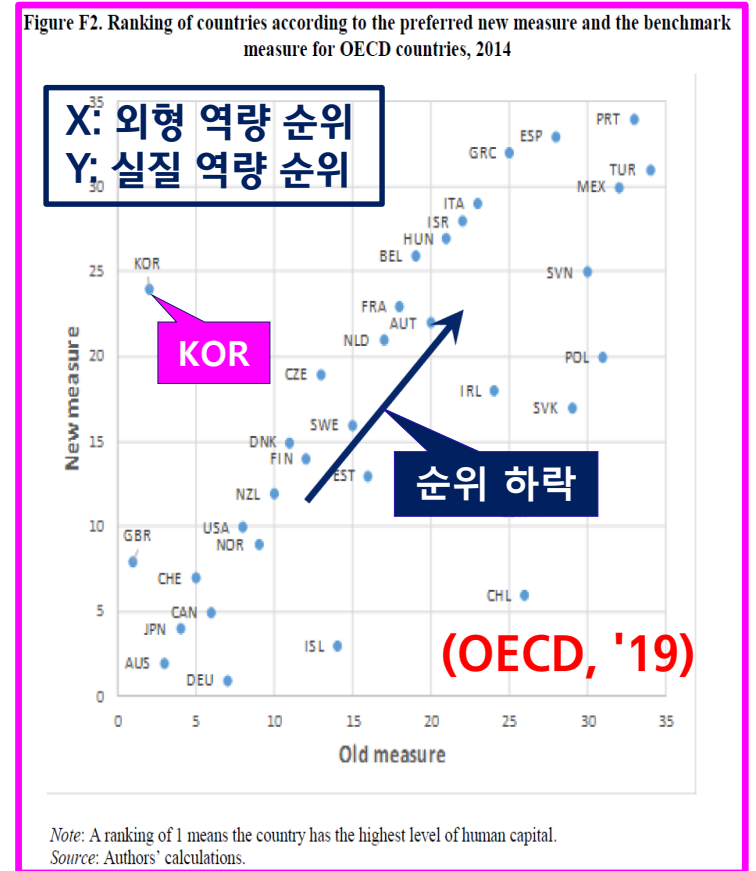
사교육 참여율 상승세 반전



1인당 초/중등 교육비도 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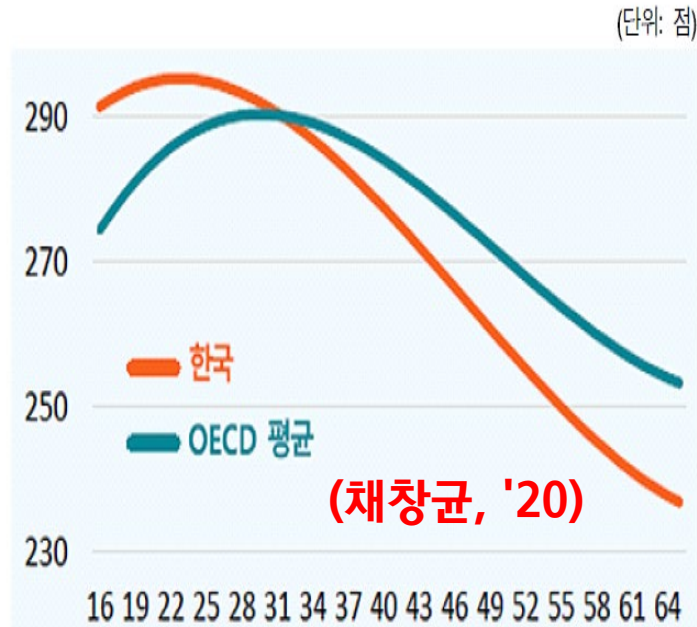
외형 vs. 실질 역량의 간극



나이 들수록 역량 급락 & 직장/평생학습 취약

연령별 PIAAC 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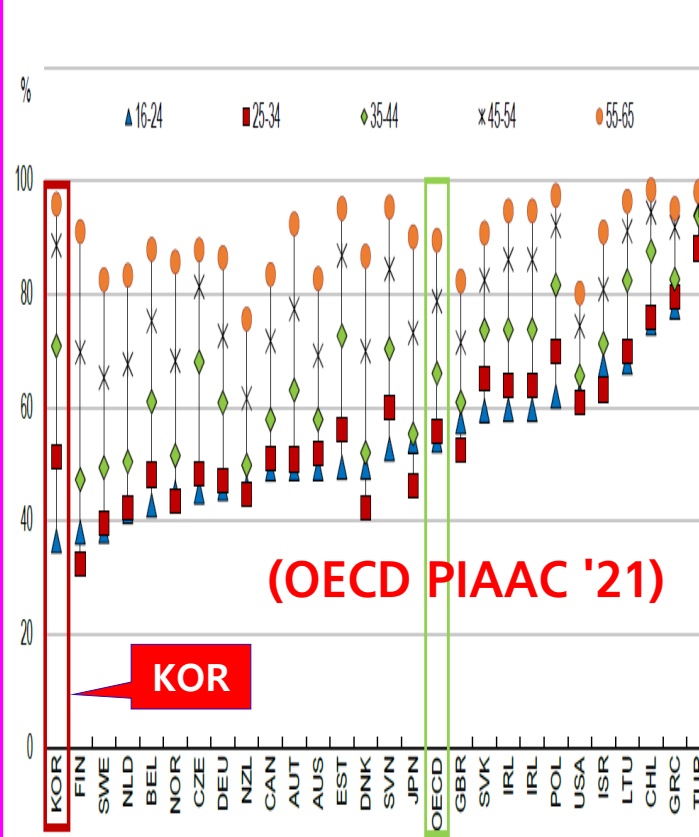
[그림 3-7]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(16~64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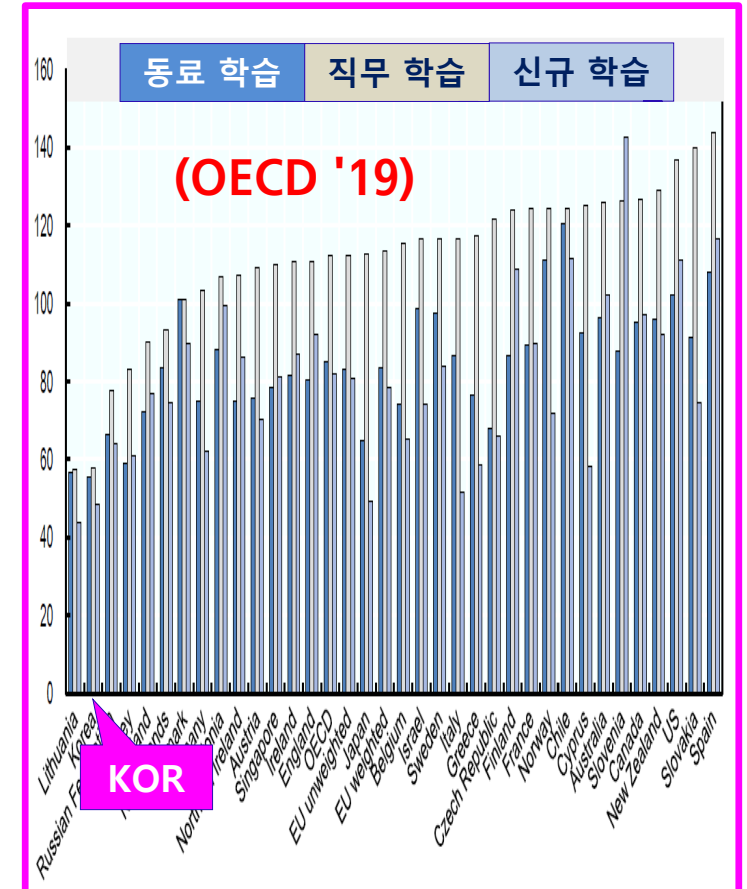
주: 역량은 언어능력(literacy)으로 측정하였으며,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(채창균 외, 2018).

연령별 디지털 미숙도

Share of adults with limited or no digital skills, by age group, 2012 or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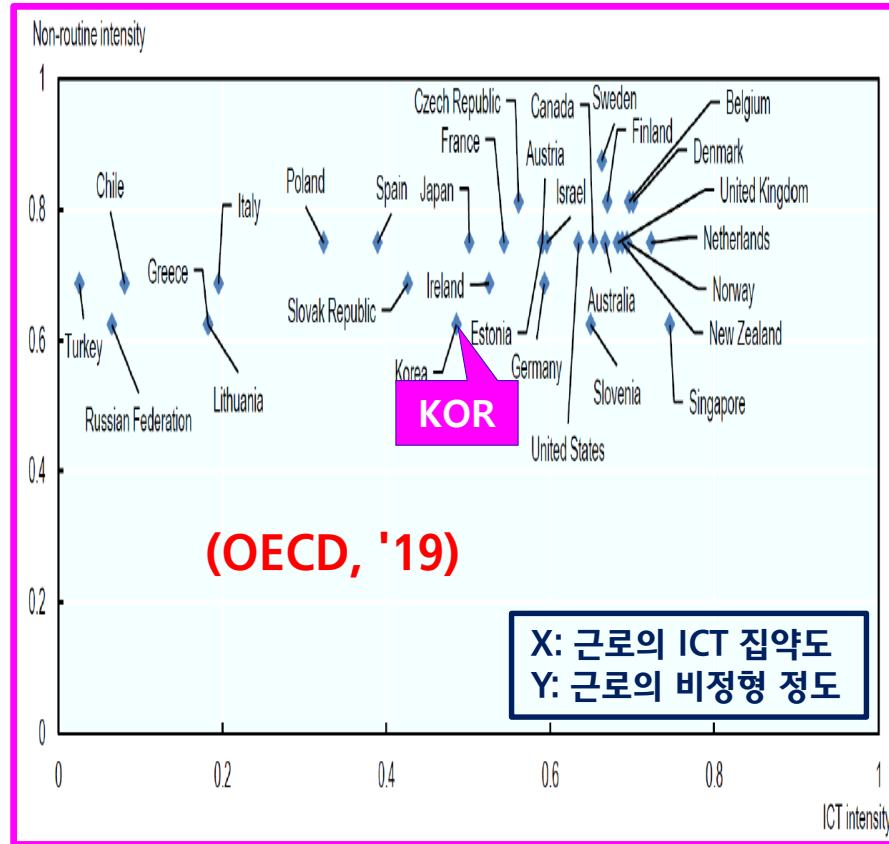


직장 학습 유형과 빈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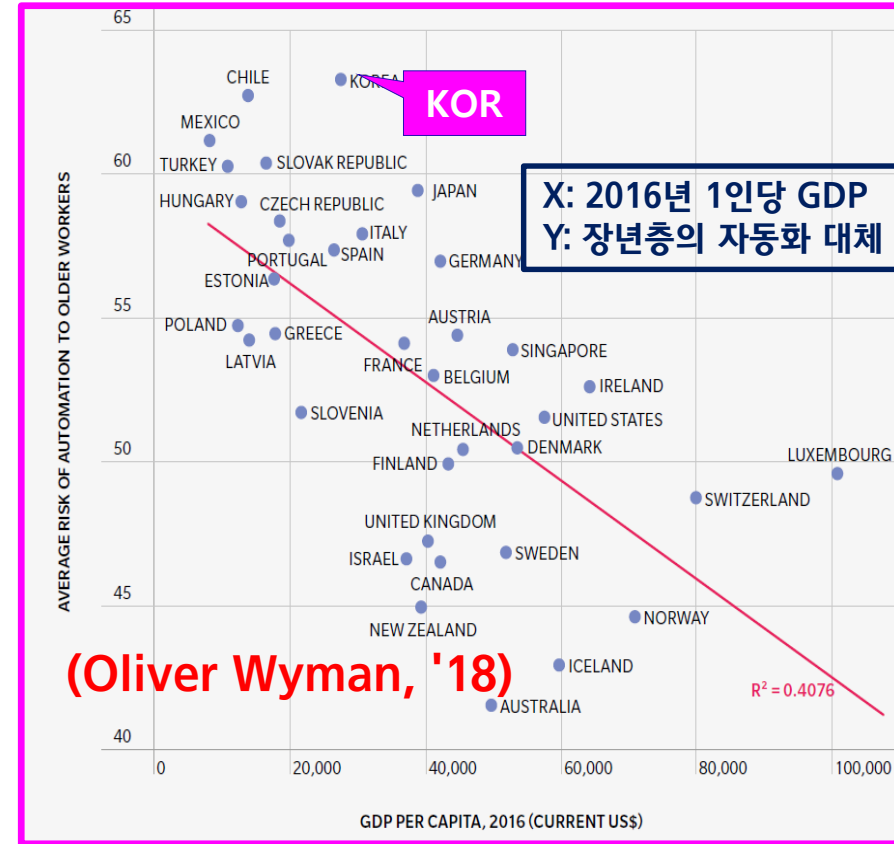


어정쩡한 숙련도 →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 농후

근로 난이도가 선진국 평균에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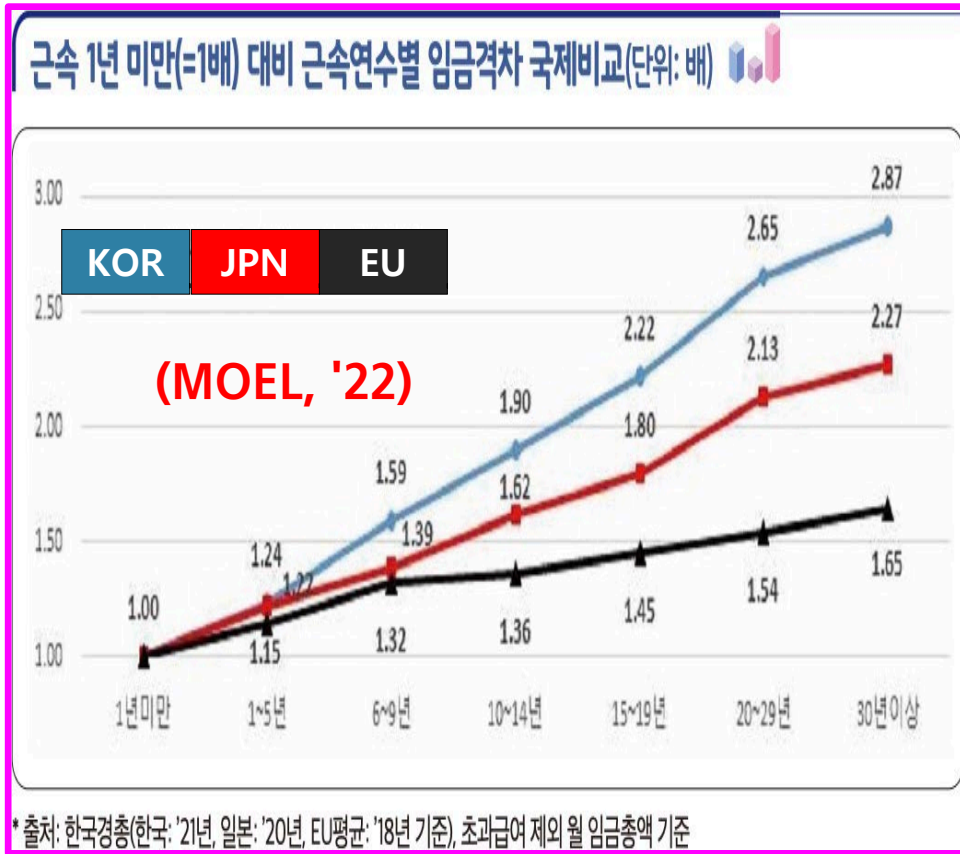


장년층의 자동화 대체 위험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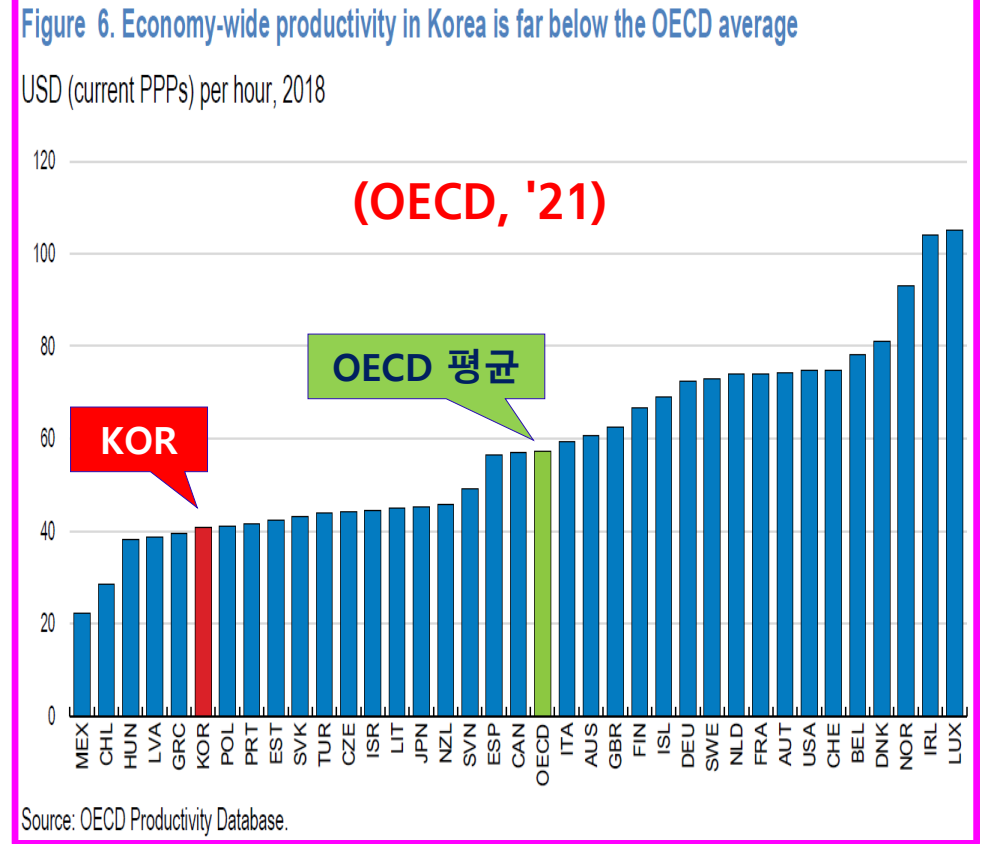


뿌리 깊은 연공서열과 낮은 생산성

연공(호봉)급에 따른 임금격차 상당



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%



1. 민간(II): 갈등 증폭, 법치/규율 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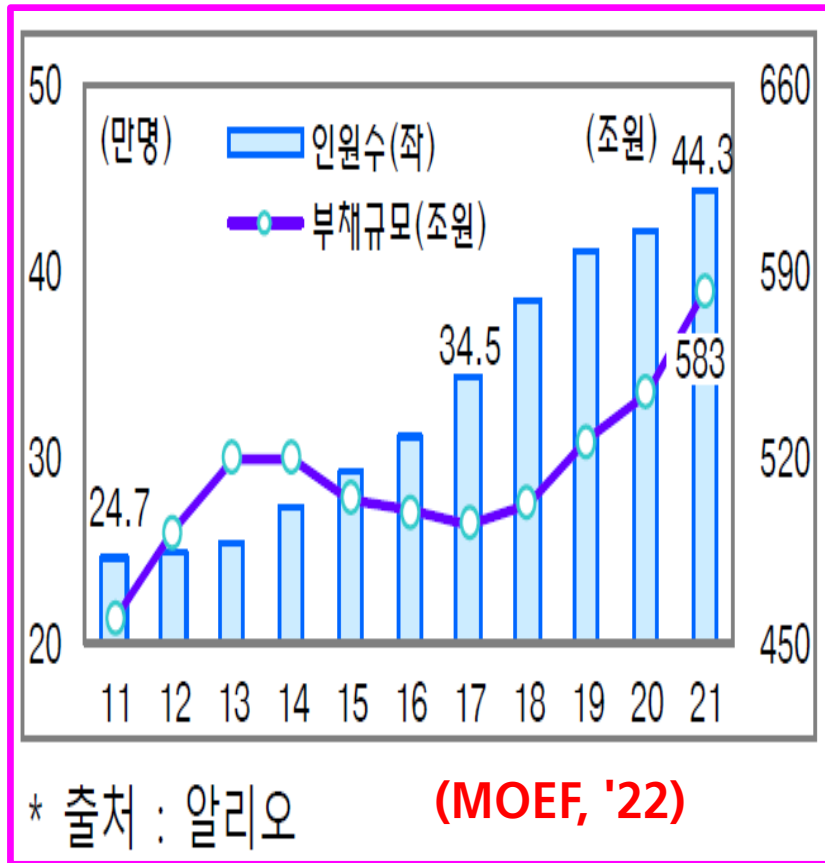
- 이념至上의 원리/種族주의 발호 → 과학/상식/규범을 압도
 - ✓ 환경: 인천공항, 千聖山 도룡뇽, 청계천, 4대 강 淤, 脫원전, 국립공원 케이블카
 - ✓ 反美: 장갑차 사망, 미군 기지 이전, 광우병, FTA, THAAD 전자파
 - ✓ 反日: 위안부/징용 사과/배상, 敎學社 교과서, GSOMIA, 토착 왜구論
- '옹호 연맹'의 거부권 만연 → 합의/타협 至難
 - ✓ 강성노조: 불법/폭력 파업/점거/현수막/소음, 非노조원 탄압
 - ✓ 서비스산업의 문턱/울타리에 편승한 기득권: 원격진료, 차량 공유, 교육 개방
 - ✓ NYMBY/PIMFY/NOOMP: 방폐장, 송전탑, 반도체공장, 동남권 신공항, 해군기지

2. 정부(I): '큰 정부' 유산과 대중迎合 정치 → 민간 활력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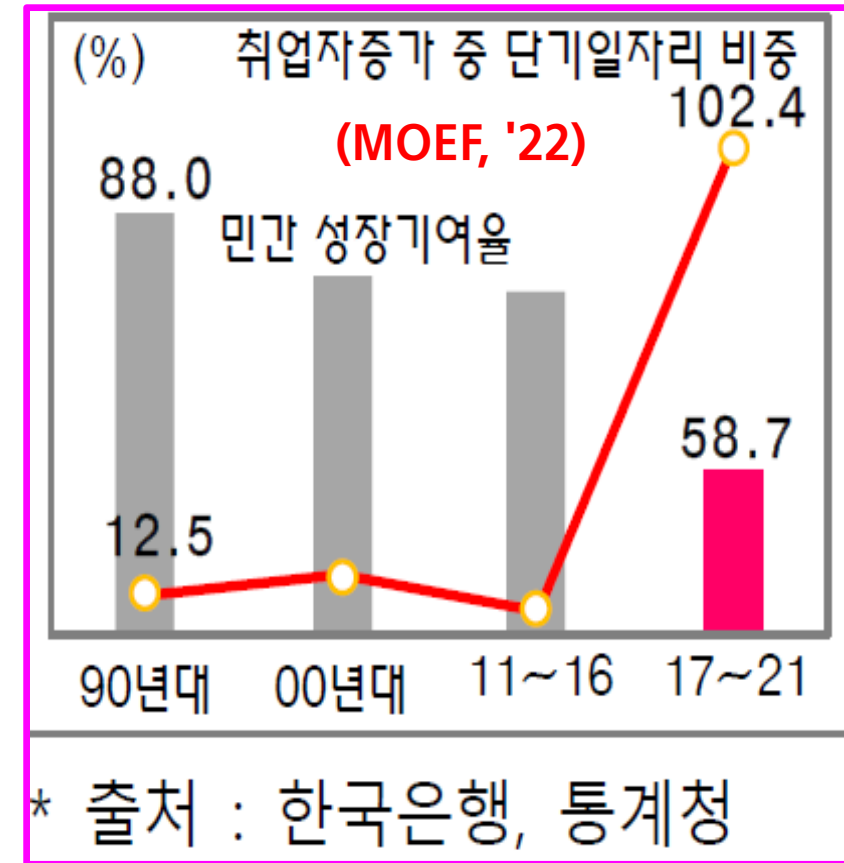
- 정부 만능의 '保姆국가' 풍조 득세: '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'
- 黨利黨略의 정쟁 → 정책 불확실성 고조
 - ✓ 무조건 찬성/반대(여/야가 뒤바뀌면 번복): 한미 FTA, 제주 해군기지
 - ✓ 前任과 차별: 원전, 금산분리, 성과급, 4대 강, 신공항, 해외자원 확보
 - ✓ 하수처리장이 된 사법부: 세종시, 4대 강, 전교조, 국정교과서, 통상임금, 검/수/완/박
- '합리적 무관심'과 '불합리한 편견' 확대 재생산 → '정부 실패' 누적
 - ✓ 대증요법 난무: 반값 vs. 무상, 재난기본소득, 講師法, 정규직 전환, 분양가 上限
 - ✓ '抑强扶弱'의 편 가르기: 多주택자 증과세, 자사고 폐지, 부자 증세, 마트 휴무
 - ✓ 영혼 없는 공직자/국책연구원의 합리화/뒤치다꺼리

공공부문의 규모/역할 급팽창

공공기관 인원과 부채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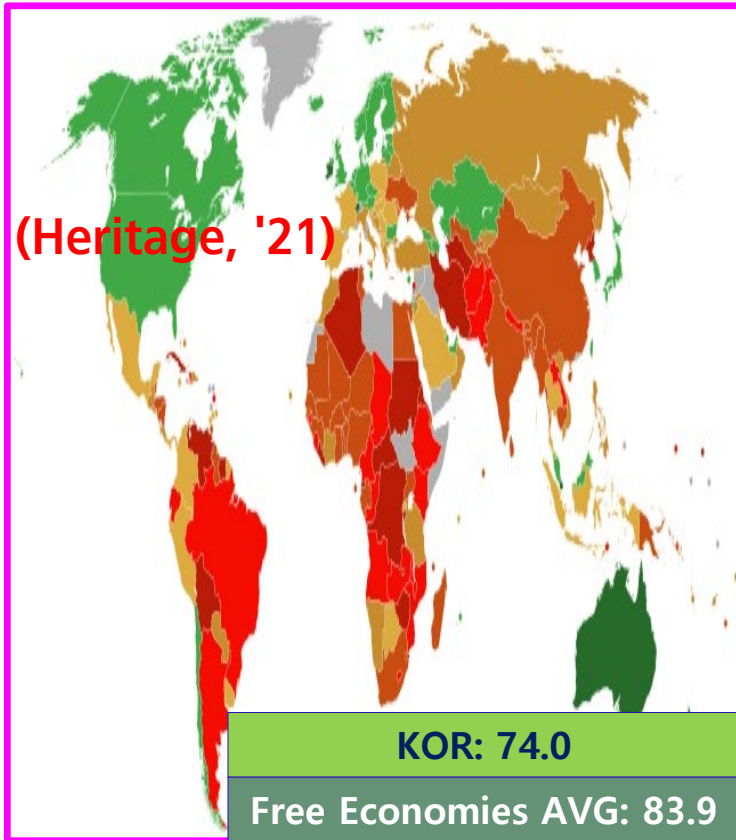


민간의 성장 기여 하락, 단기 일자리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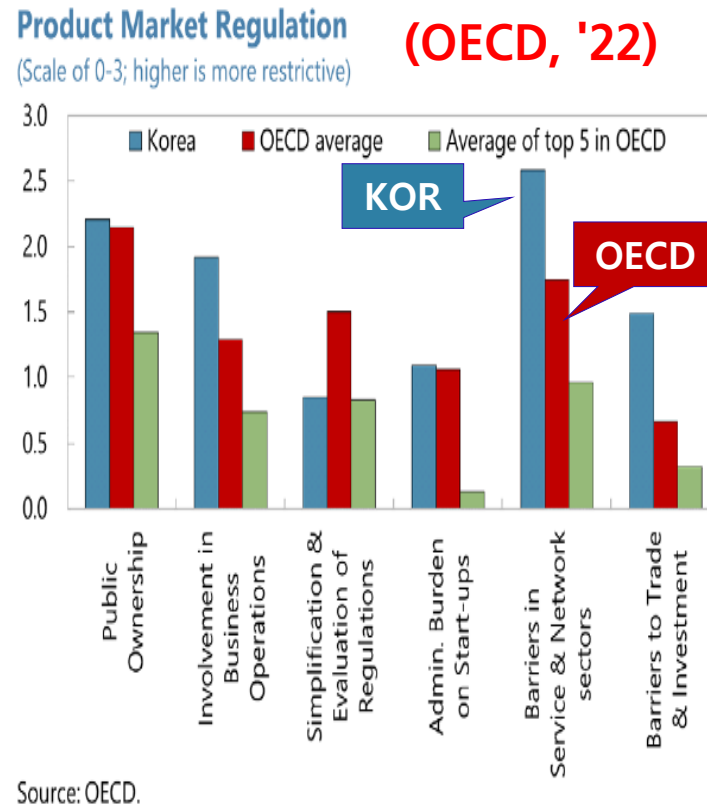


과잉/획일 규제로 민간 활동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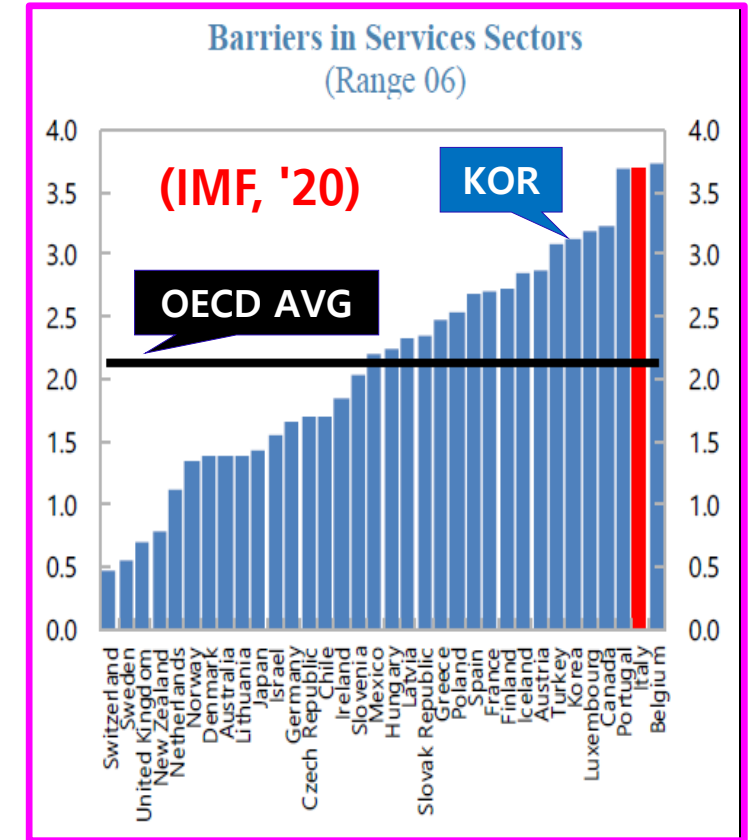
Heritage 경제 자유도



상품시장 규제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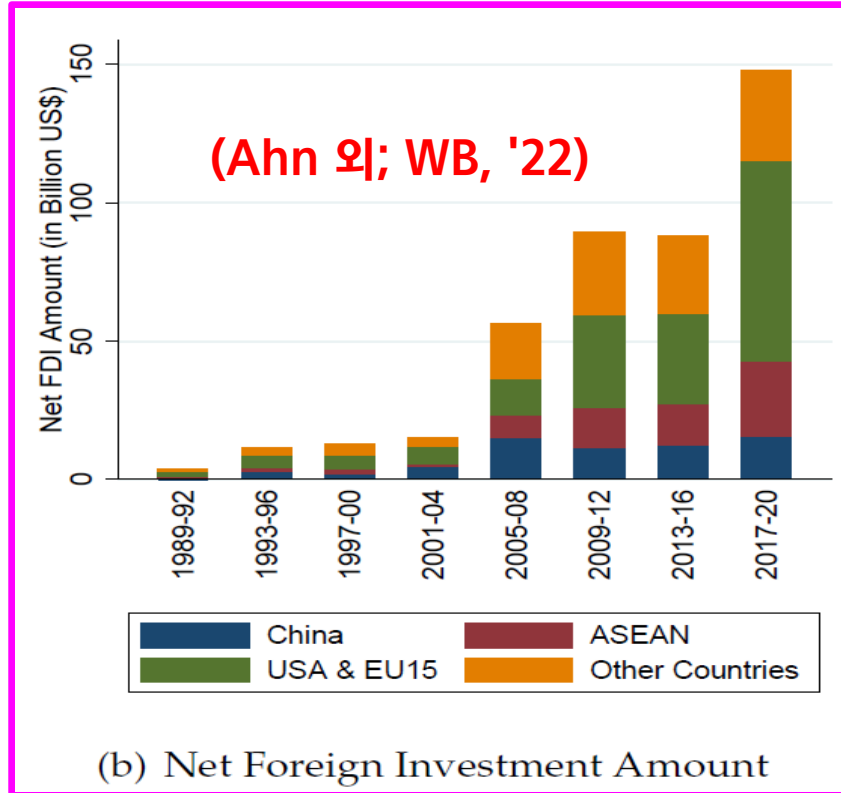


서비스산업 장벽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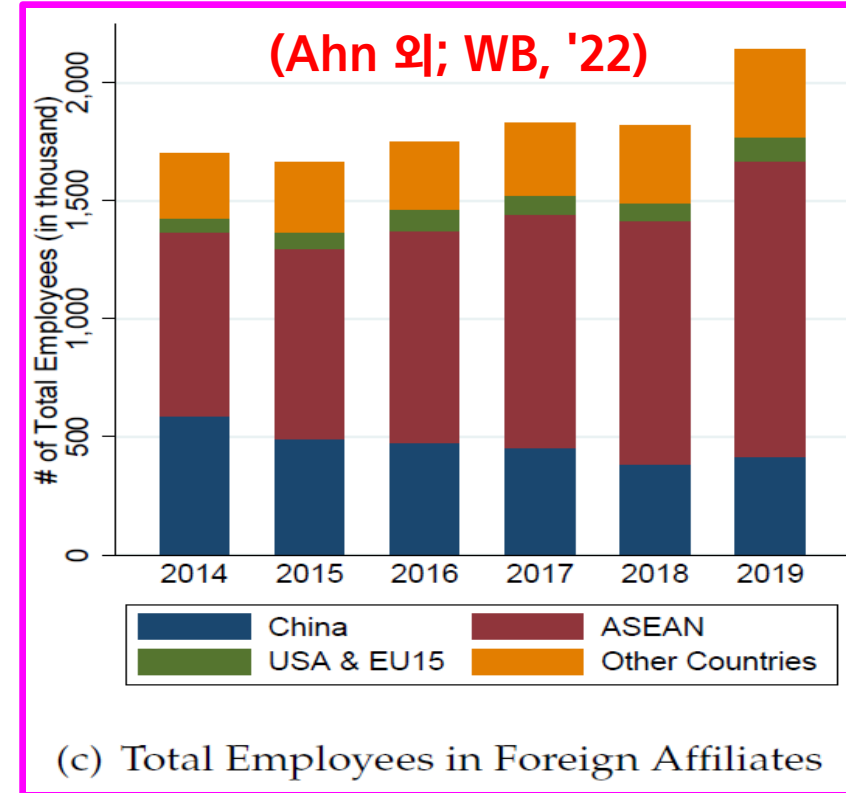


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→ 해외로 일자리 유출

한국기업의 지역별 해외투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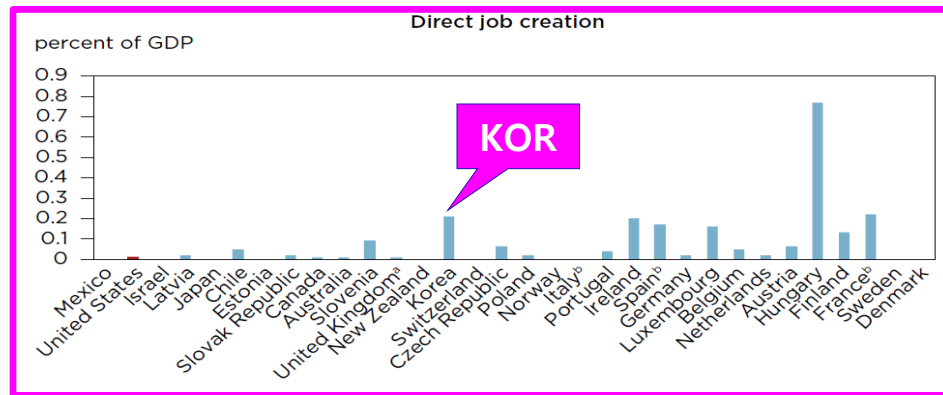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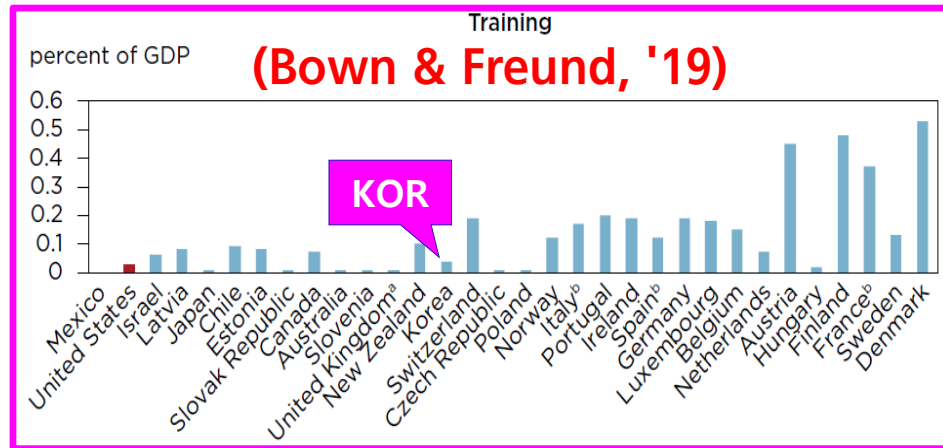


한국기업의 해외법인 고용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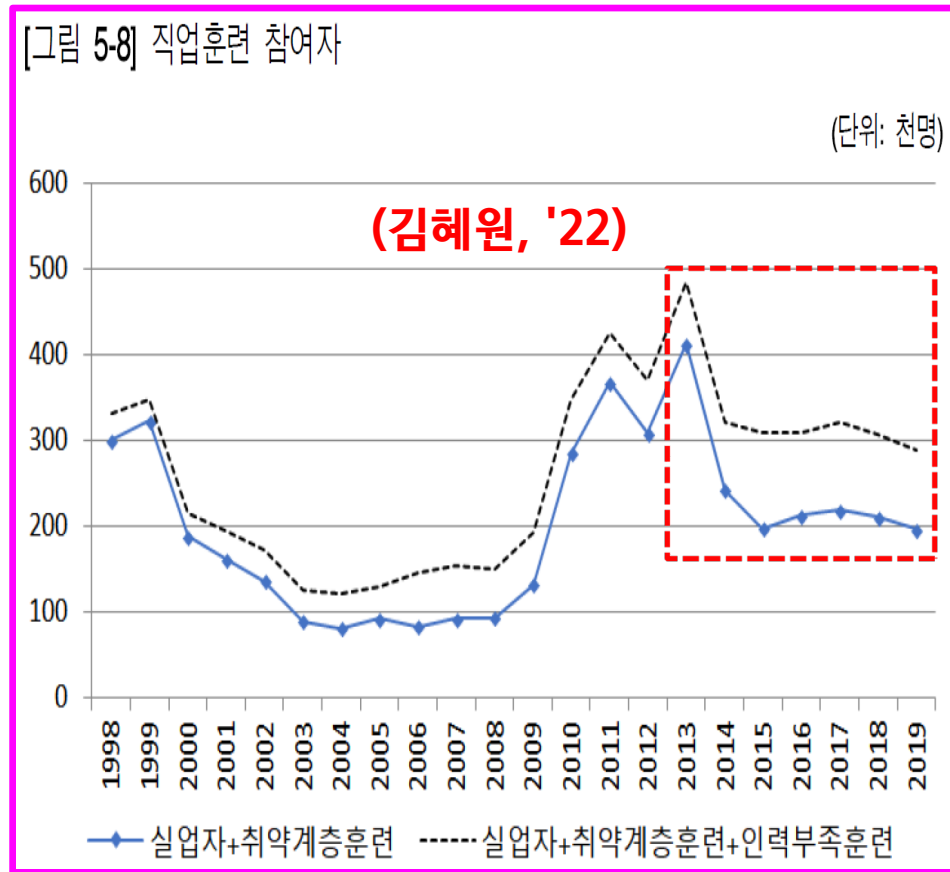


재정의 시장 개입 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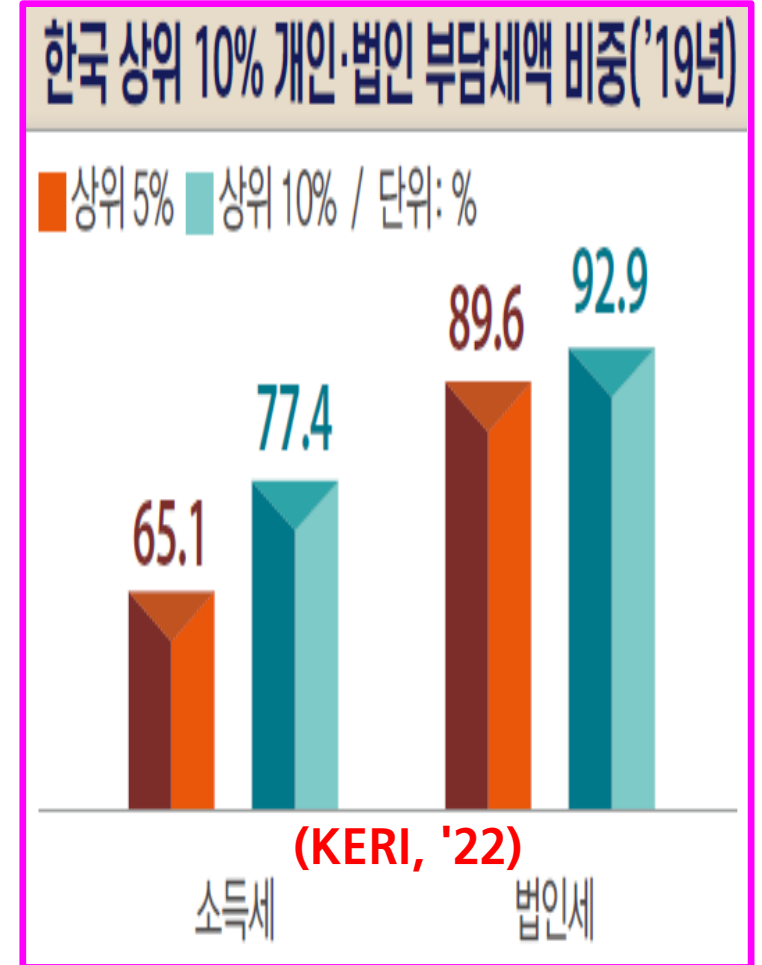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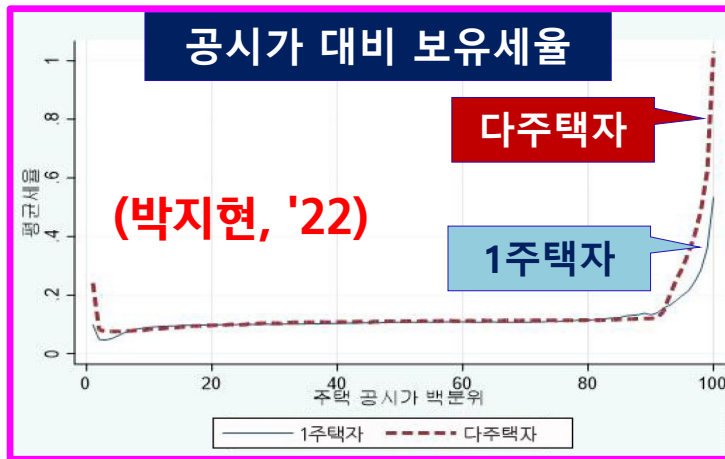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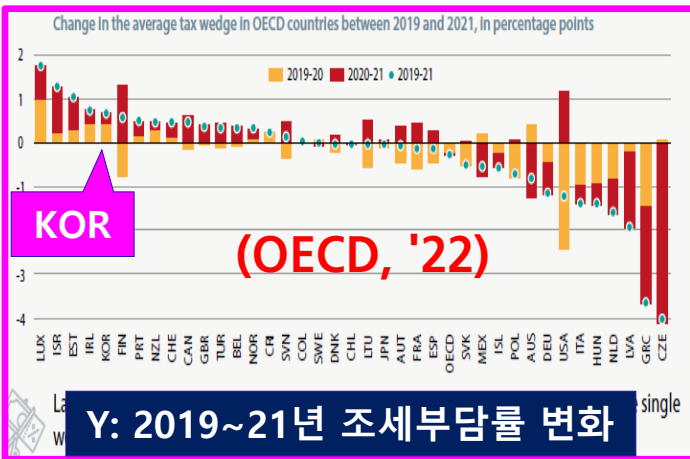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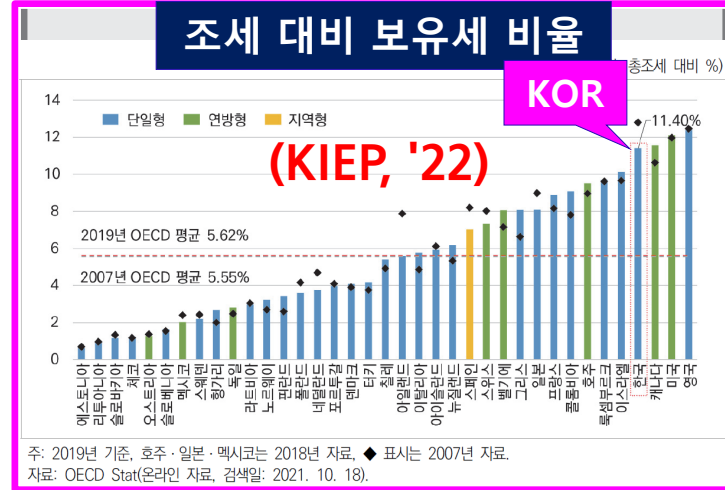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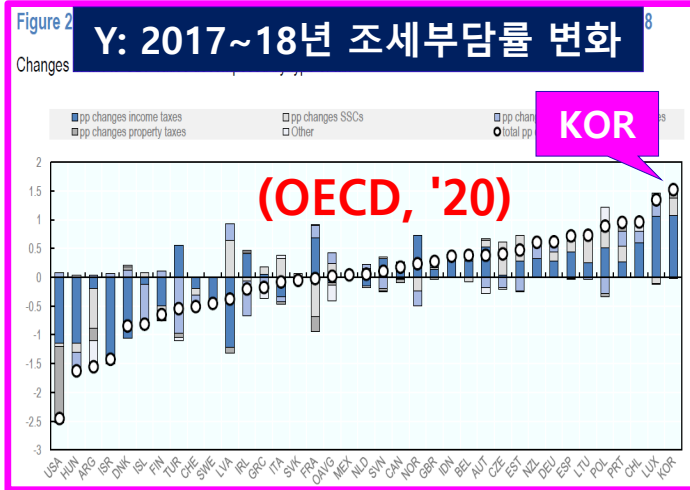
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흡(左上), 직접 일자리 창출엔 적극(左下), 직업훈련 참여자 급감(右)



[그림 5-8] 직업훈련 참여자



조세(左)/보유세(中) 증가율 최고, 상위권 편중(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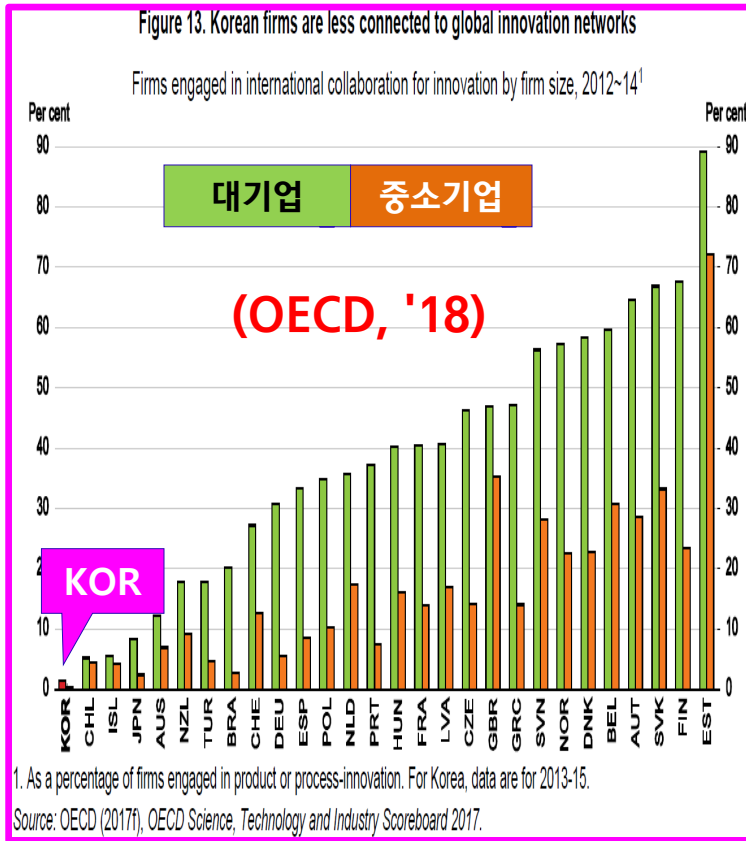


2. 정부(II): 선진국 표준과 동떨어진 규범/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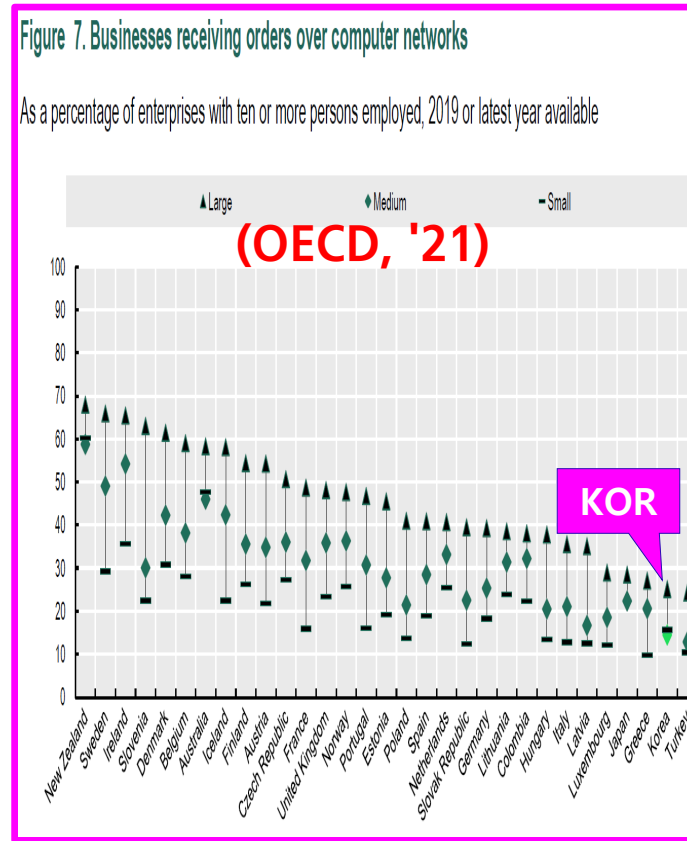
- 기업가정신 위축, 혁신과 新산업 태동 지체
 - ✓ 디지털/데이터 개방/공유/협업 등 혁신 생태계 취약
 - ✓ 낮은 면허/자격/감독/평가의 문턱과 칸막이
 - ✓ 가혹한 중대재해 처벌, 화학물질 평가/등록/관리, 무역 이익 공유 등
 - ✓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/지원과 엄격한 대기업집단 규제 → 성장 사다리 약화
- 획일 규제와 강성 노조로 자율/책임의 노사관계 요원 → 고용 제약
 - ✓ 정규직/전일제/생산직 위주 경직된 법규/관행: 'Procrustes의 침대' (조준모, '22)
 - 기간제 사유/기간, 호봉 등 임금체계, 근로시간 예외, 정산 기간 단위
 - ✓ 번듯한 직장 and 정규직 중심 노조의 횡포, 노조원의 非노조원 탄압

제조업을 Upgrade할 혁신/디지털 역량 확보/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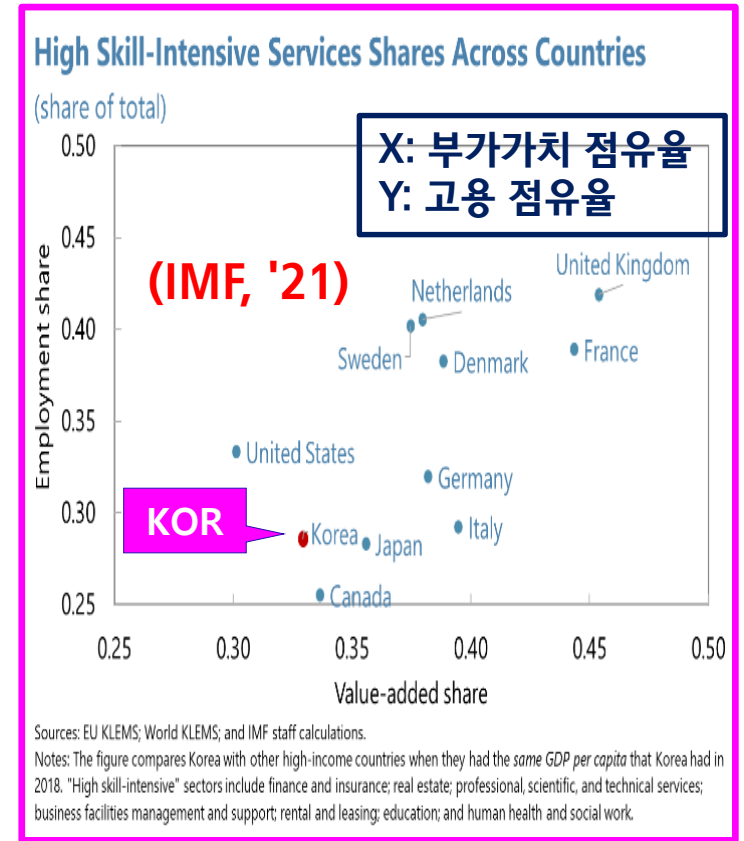
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최하위



컴퓨터 네트워크 受注 기업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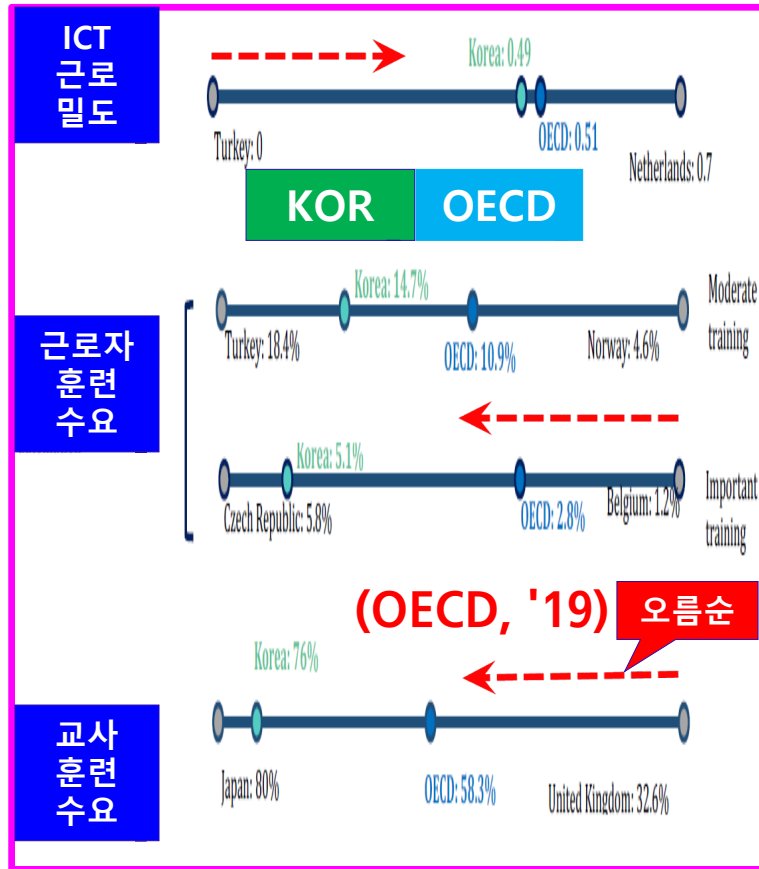


高度기술 집약 서비스 취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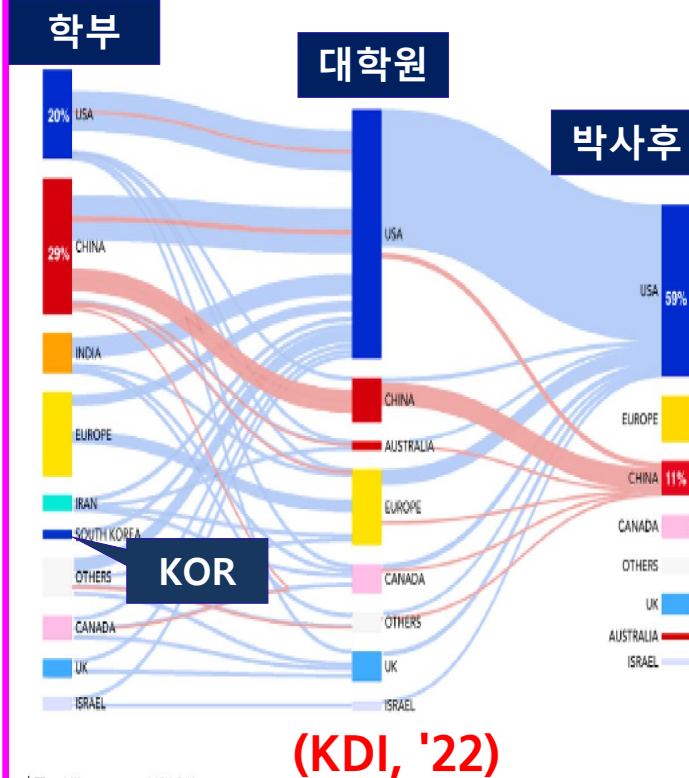
디지털/AI 숙련 미흡, Big Data 활용 저조

디지털 훈련 수요 OECD 평균 초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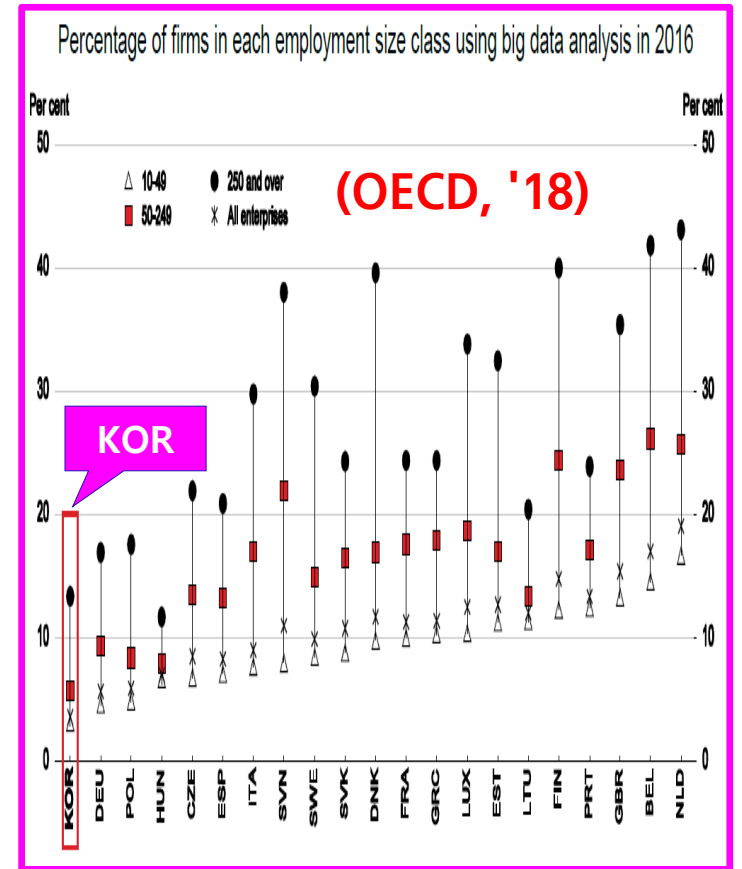
AI 인재 태부족

[그림 2-17] 국별 AI 관련 우수 인재 확보 비중



자료: Allison et al.(2021).

BD 활용 기업 비율 꼴찌



경제력 집중도(OECD 중위권) 지속 하락 vs. 규제는 강화

한국	매출집중도('20년) OECD 19개국 기준	자산집중도('20년) OECD 19개국 기준	한국 추이(2011~2020)
100대기업	15위	15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58.1% → '20년 45.6% ■ 자산집중도 '11년 59.1% → '20년 50.6%
30대기업	14위	15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42.1% → '20년 31.1% ■ 자산집중도 '11년 42.1% → '20년 36.3%
10대기업	11위	13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26.1% → '20년 19.6% ■ 자산집중도 '11년 27.9% → '20년 24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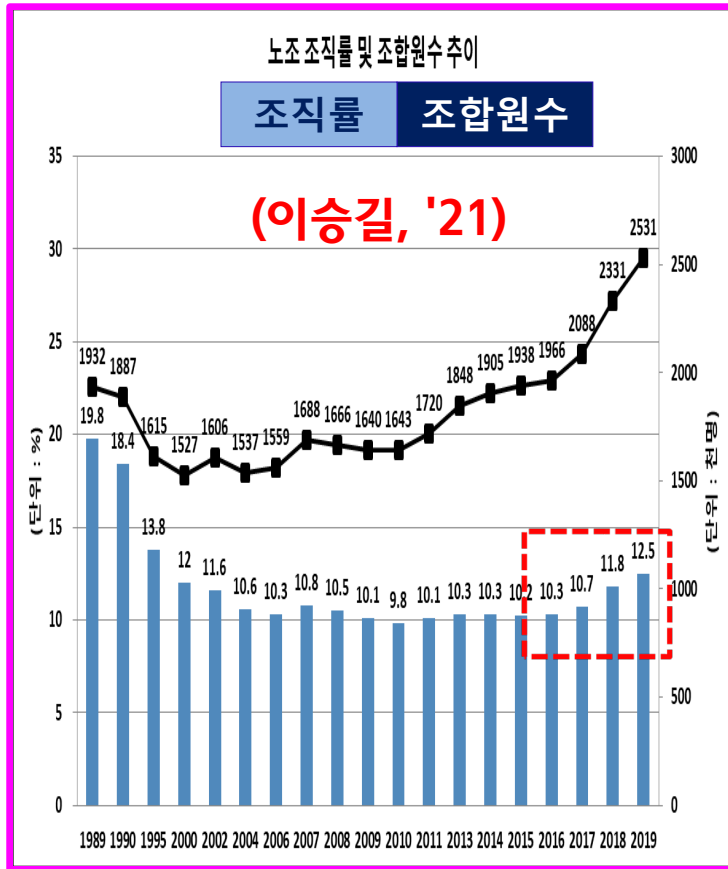
*OECD 38개국 중 기업데이터가 1,000개 이상인 19개 국가 중 한국 순위 (KERI, '22)

• 상법/공정거래법 ('20년 개정)

- 대주주 의결권 제한
- 주총 보통/특별결의 요건 엄격
- 차등의결권 부인
- 시장지배력 추정 기준 이원화
-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모호
- 정보교환 담합 추정
- 제재 수단/수준 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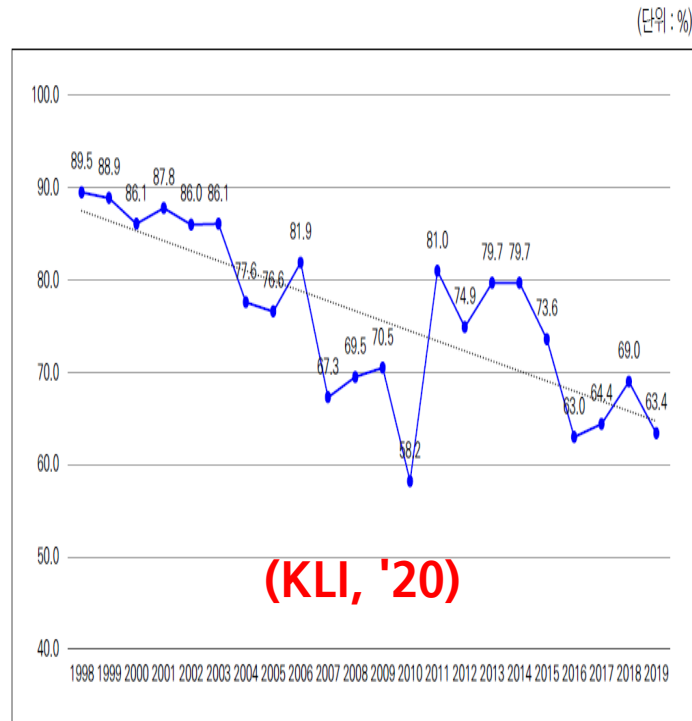
노조 영향력과 노사 불협화음 확대

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



임금교섭 진도

(그림 1) 임금교섭 진도율(각 연도 11월 말 기준)



주: 괄호 안은 2018년 같은 기간 수치를 말함.

자료: 고용노동부, 각 연도 11월(1~11월 누계) 임금결정현황 조사 결과.

파업 건수와 근로손실일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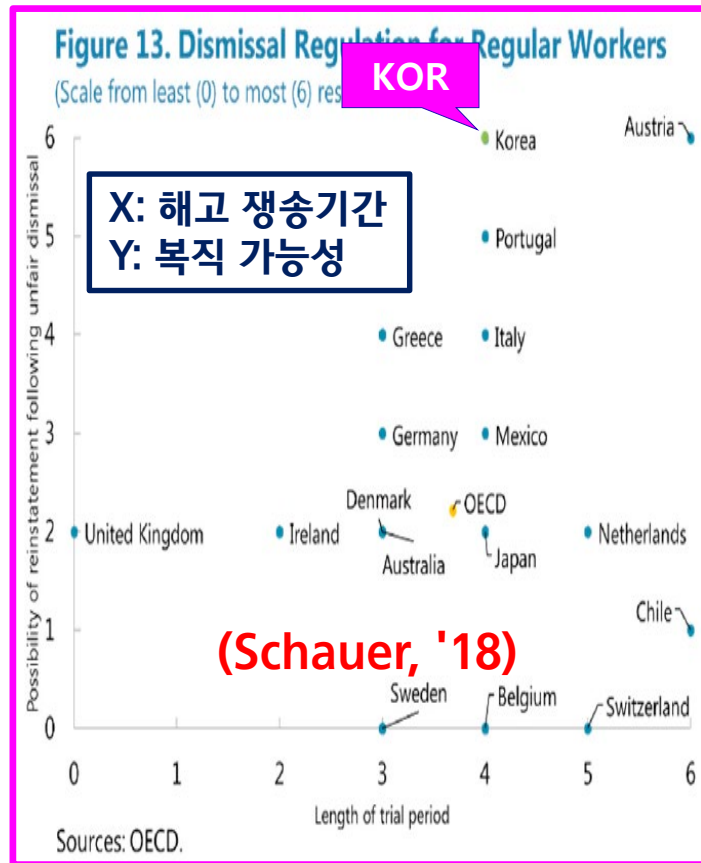
(그림 2) 각 연도 파업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비교



자료: 고용노동부 노사분류 발생건수 집계 자료.

고용의 역동성/다양성 미흡 → 고용률 제약

정규직 해고 규제 강력



종사상 지위 고착

Table 2. Flo 지위의 연간 이동 확률 (2013-20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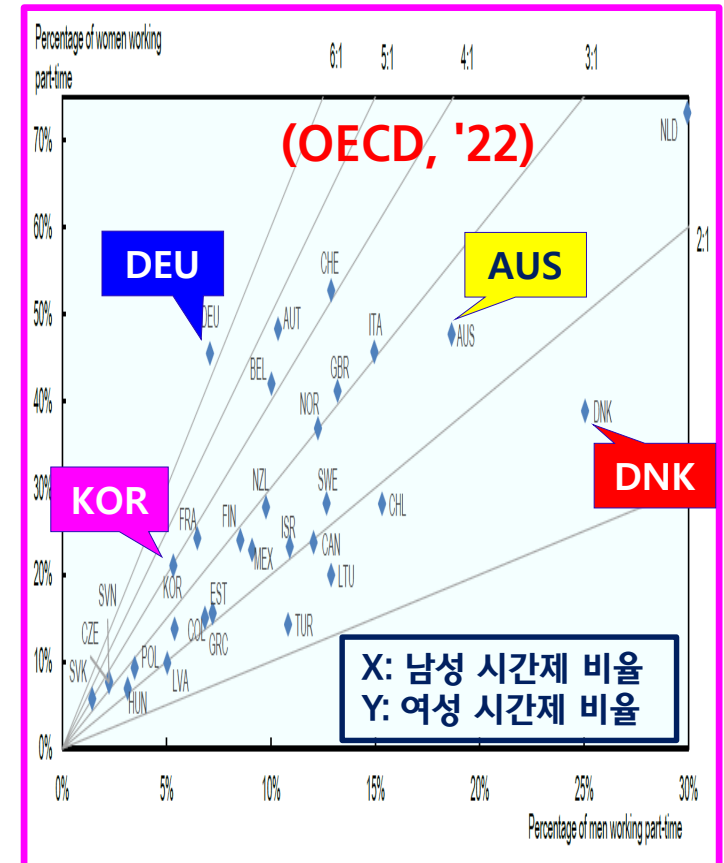
	To			
	Regular	Temporary	Self-employed	Non-employed
Regular	92.5%	1.4%	0.9%	5.1%
Temporary	4.8%	81.4%	1.7%	12.2%
Self-employed	1.3%	2.2%	92.1%	4.4%
Non-employed	3.6%	4.1%	0.9%	91.4%

Source: KLIPS, author's calculations.

(Schauer, '18)

Note: Non-employed includes unemployed and inactive.

시간제 근로 未활성화



I 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 앞으로가 더 문제



III 걸림돌



IV 침로

No Pain → No Gain

- **중규모 개방 경제 → 세계경제와 동조화 불가피**
 - ✓ “발등의 불은 꺼도, 손쉬운 지름길은 없다.”
- **욕먹더라도 긴 호흡으로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에 진력**
 - ✓ 성장률 1%p의 힘: 소득 2배 소요기간 (연 1% 72년, 2% 36년, 3% 24년)
 - ✓ 돈 들지 않는 규제개혁 최우선: **기득권 축소, 保姆국가 탈피**
 - ✓ 성장과 분배는 동행 → 학습(L&D) 개혁, 일자리 창출, 가족가치 복원에 역점
 - **노동개혁, 혁신(디지털/AI) 역량 향상, 지속 가능한 '일하는 복지'**
 - **사회규범(법치/투명성) 확립과 공민 의식 함양**
 - ✓ 중기 전략 과제도 매진: **결혼/출산/이민, 해외자원 개발, 탄소 생산성 제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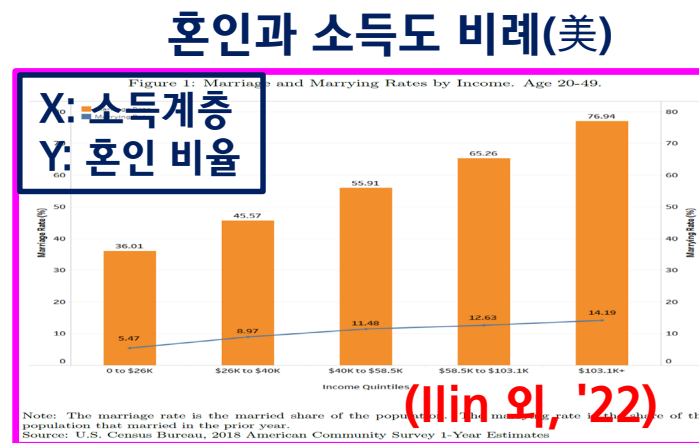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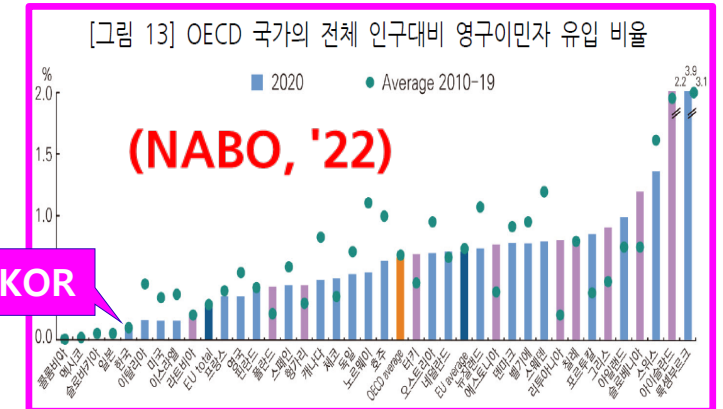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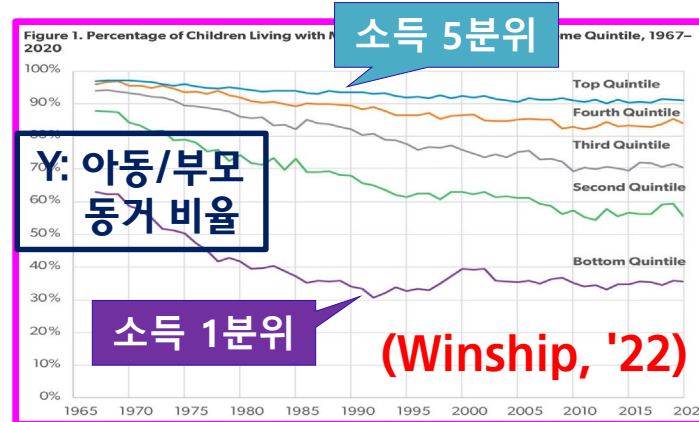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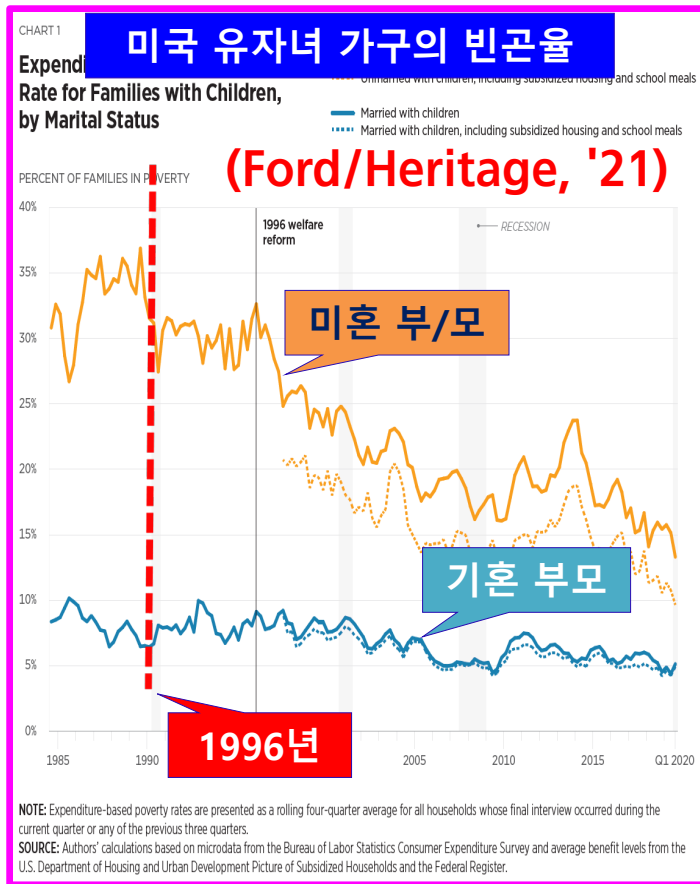
1. 가용 인력 극대화 & 역량 향상

- '일하는 복지'로 자활 촉진: 美 '96 복지개혁 → 빈곤층 감소 (Weidinger, '21)
- 조기 入職: 조기 취학, 취업 후 진학, 징/모병 혼합, 학부 단축 (Poliakoff, '20)
- 평생학습/개발(L&D) 정착: MOOC, 중/장년 ICL
- 전공/계열을 시장수요에 걸맞게 조정: STEM vs. HEAL, 교과 선택 (Brickman, '22)
- 교육의 자율/다양성 제고: 자사고 확대, AI 맞춤형 지체 학생 교육
- 이민 문호 확대: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
- 고용과 인력 이동의 유연성 제고, 年功給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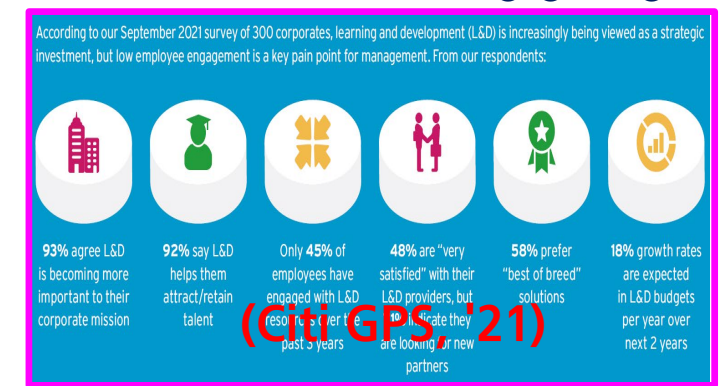
'일하는 복지', 양부모 가족과 L&D가 지속 성장의 디딤돌

'96년 복지개혁 후 빈곤층 격감(美) 아동/부모 동거와 소득은 비례(美)

한국의 이민자 비율 최하위권



학습/개발은 年 18% 성장 전망



2. 자유와 기회 확대 → 민간 활력 증진

- 자율/창의/경쟁/개방/혁신/다양성 고취 → 유인/책임 강화
 - ✓ 균등한 기회 보장, 공정한 규칙/질서 확립을 병행
 - 신호등/카메라/과속 방지턱 vs. 일단 멈춤/자율 교행
- 정부 입김 축소, 시장 친화적 규제, 선진국 표준 수용/창출
 - ✓ M. Friedman: "시장경제는 가난을 이기는 최적의 기제"
 - ✓ 반면교사 J. Curley 보스턴 시장(20C 전반): '가난한 사람들의 시장' 자처
 - 방만한 복지, 만성 부패, 세금 폭등 → 일자리 고갈, 재정 파탄
- 전문가 검증/唱導/公論/熟議 활성화: 교육/에너지/연금 등 백년대계

No pain, no gain!



啐啄同時

